

# 성경연구방법

# How to Study and Teach the Bible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0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성경연구방법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초판발행	2010.11.20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a href="http://www.ilovekjb.com">www.ilovekjb.com</a>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21-3

정가 8,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How to Study and Teach the Bible

## 성경연구방법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KJ** 도서 출판 **강제임스**  
King James Bible Publications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목차

역자 서문 6

서문 10

제1과 성경 읽기에 관한 9가지 원칙 18

제2과 8가지 성경 연구 방법 37

제3과 성경 연구를 위한 21가지 열쇠 65

제4과 문자적 성경해석 92

제5과 점진적 계시의 원칙 110

제6과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131

제7과 단어 연구 방법 155

제8과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원칙 175

제9과 비문자적 본문의 해석 원칙 197

# 역자서문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성경은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 받는 유일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 받기 위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인정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엡 4:8-12). 둘째 방법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요 일 2:27). 이것은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것을 스스로 연구하면서 그것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가만히 앉아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 됩니다. 문제는 혼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과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두 다리와 같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설교를 듣지만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하지 못함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혼자 힘으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책을 출간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독자가 혼자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성경의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다고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생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역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킹제임스성경신학원(King James Bible Institute)은 6학기, 3년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신학원 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주된 것은, 어떻게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평생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원래 신학원 강의로 된 것으로, DeLand School of THE BIBLE에

서 James W. Knox 목사님이 강의한 것입니다. 전체 강의의 제목은 “How to study and teach the Bible”이며 총 9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각 강의의 제목은 없는데 역자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개개의 강의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주제가 자유롭게 섞여 있습니다. 역자가 글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재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였으나 결국 역자 임의로 강의를 재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의의 내용을 대부분 옮기려고 노력하였으나 문화적인 차이와 영어 강의 듣기의 어려움으로 약간의 내용을 우리말과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원래의 강의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득이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역자 임의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옮긴 내용을 원래의 강의와 비교해 본다면 내용의 손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점은 모두 역자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거든 역자에게 알려주시면 다음 판을 인쇄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신학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0년 봄학기에 이 책을 교과서로 해서 같은 제목인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신학원에서 강의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v.com](http://www.ilovekjv.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3년이나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평생 다녀야 합니다. 이 세상



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충분하다고 할 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의 경이로움에 놀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성경의 주제이자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0년 6월

역자 이우진

# 서문

먼저 시편 33:4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제임스 나스는 옳으며 그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학자나 목사라도 “주의 말씀”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나 단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옳으며 침례 교회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라는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목사나 설교자의 말에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목의 기초와 뼈대를 모두 주님의 말씀에 두고 그 위에 하나씩 쌓아 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기초를 쌓아가다보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기

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쉬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부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기초는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공부의 첫째가는 기초는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나요? 오늘 성경을 충분히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충분히 묵상했나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재미있고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없고 즐겁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모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입이나, 귀나, 눈이나, 손이나 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해 자신이 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즐길 수 있다면 그 명령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별로 즐겁지 않고 또 능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영

적인 삶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행동도 성경적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이 걷는 인생도 성경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인도해 주시려고 해도 성경을 모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의 경우에 있거나 전혀 상관없는 방향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읽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으라(read)’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고(study)’ ‘찾아보라(search)’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읽을 수는 있지만 연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는데에서 멈추지 말고 읽고 연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읽고 연구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타고난 성품이 순종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옳게 행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순종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순종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찬양입니다. 성경은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은 읽을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읽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해서 찾은 놀라운 보화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순종할 주님이 있다는 사실에 감

사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풍족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국 사람들을 예로 들면 80%이상의 사람들이 케이블 TV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8%의 미국인들은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풍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지난 수천년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한 풍요입니다. 300년 전에 전기가 들어오고 TV가 있는 집에 살았다면 엄청난 부자일 것입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이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드리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복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성경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인간 중재자 없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

종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 원하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간증을 지키고 균형을 잡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특징에 대해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업데이트 되어 있으며 현재의 필요에 부응합니다. 어떤 시대나 어떤 문화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문명이든 간에 성경이 뒤떨어졌다는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간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평이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적당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지만 이방인들이 사랑한 책입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러한 책을 세상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동양에서 기록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게 하기도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지와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미움으로부터 살아남은 책임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어려움과 죽음의 순간에 환영받는 책임입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임종의 순간에 “톰 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을 가져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계시해 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책들은 인간의 추측과 상상과 미신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죽음 이후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계시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언어학자들, 발명가들 그 밖에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의 비평을 견뎌낸 유일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돌멩이나 진흙 덩어리나 뼈다귀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 매우 정확한 책입니다. 지난 수백년간 중동을 탐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명과 역사가 사실이었음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몰몬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몰몬경을 입증하는 단 하나의 도시도, 마을도, 경계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 지도를 만들고 이 세상의 지도와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과학과 일치합니다. 화학, 지질학, 천문학, 수학, 생물학 및 모

---

<sup>1</sup> 몰몬경(The Book of Mormon), 몰몬교의 경전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으로 믿습니다. 몰몬경은 많은 곳에서 성경과는 매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허구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역주

든 종류의 예술 및 과학과 일치합니다. 어떠한 천문학자도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것을 태평양에서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 봐도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과학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우 부정직한 세상입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나온 베스트 셀러 리스트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리스트에 올라가기 위해 몇 권의 책이 판매되어야 하는지 아세요? 5만권이면 됩니다. 별거 아니지요? 5만 권이면 베스트 셀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반 독자가 아무도 책을 사지 않아도 베스트 셀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5만권의 책을 누가 구입하는지 아세요? 서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쓴 책을 아무도 읽지 않아도 대형 서점에서 구매해 주면 그 주의 베스트 셀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공립도서관에서 대형 출판사의 책들을 매년 일정량 구매해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쓴 책이 공립도서관의 비치 도서로 선정이 되면 그 책은 수만권이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서가에 꽂혀 아무도 읽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베스트 셀러가 되는 겁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이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의 책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아무도 읽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베스트 셀러가 됩니다. 공립 도서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누구나 베스트 셀러 작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간, 월간, 연간 베스트 셀러 목록의 1위가 되어야 할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베스트 셀러 목록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 실제로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베스트 셀러 목록에서 빠지는지 아세요? 그 목록을 작성하는 사람이 성경을 픽션과 논픽션 중 어느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픽션 목록에 넣으면 성경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할 것입니다. 논픽션 목록에 넣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항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목록에서 빼버리고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아무도 구매하지 않고 읽지도 않는 책인 양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매일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이 한때 인기있었다가 시들해졌습니다. “해리포터(Harry Potter)”가 그 뒤를 이었다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셀러임이 틀림 없습니다.

## 제 1 과

## 성경 읽기에 관한 9가지 원칙

오늘 우리는 성경 읽기의 9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원칙을 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2:13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책이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여러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다른 책들에는 없는 영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즐기만 않는다면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가 쓴 모든 책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테니스(Alfred Tennyson)이나 키츠(John Keats)나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sup>2</sup>의 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글에는 어떤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그 자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신문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리더스다이제스트를 읽기 전에 그것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

<sup>2</sup> 우리나라로 치면 윤동주, 김유정, 이상과 같은 작가들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역주

다.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저자와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그 책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저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분만이 독자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이 무슨 비밀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한 개라 할지라도 인간과 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개는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과 개 사이에는 의사소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알던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계시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놀라운 일이지는 하지만 아주 친밀한 교제를 맺은 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다 기록하고 나서 자신들이 기록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 설명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구나. 나중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형태로 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은 인간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추고 계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성경은 모두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책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온전히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면 초등학교생이라도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언어학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처럼 그 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주하실 것을 요구하는 책은 없습니다.

13절에서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 저기서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증거가 조화를 이뤄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어 매우 명백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12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 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 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고후 3:12-16)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베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눈과 성경은 모두 멀쩡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과 성경 사이에 어떤 베일이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베일을 벗기시는 것입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책을 보는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영적인 시각을 가렸었기 때문입니다. 해리포터는 언제든지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책들에는 영적인 계시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원칙은,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

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강해한 책도 있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설교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일을 벗겨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원한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4:16을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주님께서는 단순히 성경을 구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11도 보세요. 여러분은 읽고 읽고 읽고 읽어야 합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지요. 설교자가 전하는 내용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신이 들은 설교가 성경과 부합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성경과 비교해 보고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읽고 읽고 읽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13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마음을 쏟으라.”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설교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공부 준비도 하고 심방도 해야 하고 복음도 전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읽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공부 인도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원칙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면서 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순종할 생각도 없이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13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만일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효력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일년을 다니긴 삼년을 다니긴 삼십년을 다니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않는다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주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하는 것은 모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것에 여러분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루종일 록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음행과 간음을 조장하는 영화를 하루종일 보면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기록하신 거룩한 성경을 읽으며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3:3-4을 보세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

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  
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  
로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로 다르면 그때는 동전을 던지세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오직 한가지 안전지대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하기  
를 원하실 께야.’ 하는 생각도 잘못된 것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가장 훌륭한 인간이 지은 책이라고 할  
지라도 전혀 무익할 수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여러  
분을 잘못 인도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넷째 원칙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  
면서 수학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 교과서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할 필  
요도 없습니다. 영어 수업에 들어가면서 “주님 이 수업으로 인해 저를 변화시  
켜 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  
나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거짓 종교도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훌륭하고 선한 사람들도 잘못을 범  
하고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는 진리를 전하던 건전한 교회가 오  
류에 빠져 이단적인 교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마  
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



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만큼 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18을 보세요. 여기에 나온 기도를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반복된 기도를 금지하지 않았습니 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헛된 반복입니다. 여러분은 똑 같은 기도를 수백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시편 119:18에 있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119:18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26을 보세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26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12-15도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

는데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저자에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주님께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읽으면서 기도로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께 질문을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칙은, 성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은 진리를 이해하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이해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더 이상 자라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지식 안에서 계속 성장하다 성장이 멈춰버린 경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서는 더는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하셔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자동으로 진급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을 마쳤어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1학년이 됩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3학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욥기 34:32을 보시겠습니다. 욥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단순히 자신의 머리를 성경 지식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기도한

것은 “주님, 저에게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당장 그것을 고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옴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옴은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옴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열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계속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한눈을 판다면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에게 왜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진리는 머리만 채우는 진리가 아니라 온 마음과 삶을 채우는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순종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17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doctrine)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구절을 보면 가르침(교리)이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의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리를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주님의 가르침(교리)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결길로 가버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에 다니거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대로 순종해서 행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연약한지 강한지 물으신 게 아니라 주님을 뜻을 행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신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이나 능력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먼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적고 능력도 적지만 주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섯째 원칙은, 성경을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주어 계속 해서 읽고 읽고 읽고 읽으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을수록 더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작아지고 성경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번 읽은 책은

5권 정도 되고 세번 읽은 책은 3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한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이상한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면 또 서로 연결이 되는 관련 구절도 많아집니다. 또한 읽으면 읽을수록 흐릿했던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을 거듭해서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킹제임스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일년이 지나고 십년이 지나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읽으면서 성경은 읽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구원 받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을 쓰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한 권의 책에 기록해 두셨는데 우리는 고작 이 책을 한 번만 읽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두 번만 읽었다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단순히 한 두 번만 읽을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성경을 알아갈수록 성경 읽기가 지루해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나무와 같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그냥 큰 갈색 기둥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읽다보면 큰 가지와 작은 가지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나중에는 잎사귀 하나 하나까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전에는 한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부분이 드러나게 됩

니다. 이 세상에 그런 책은 없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날 며칠을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들었더니 나중에는 그 노래에 완전히 질려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들은 최고의 노래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질려버리게 됩니다. 한 때는 너무나 좋아해서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노래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다섯 번 읽었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여섯 번 읽으면 성경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60번 읽었다면 70번 읽으면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0살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 성경을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은 60년 이상 성경을 꾸준히 읽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 새롭다고 합니다. 60년을 읽고 가르쳤는데도 새롭게 느껴지는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그런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합니다.

일곱째 원칙은, 성경을 순서대로(연속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66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모으셨다는 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을 순서대로 읽지 않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계시록부터 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순서대로 엮어 두셨다면 우리는 그 순서에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25-27을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의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알려주

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보면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지루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살아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루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책인 성경에도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특정 부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그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부분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루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올해에는 별다른 감흥없이 읽은 말씀이 내년에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덟째 원칙은, 우리는 성경을 인내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읽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주셔서 하루 아침에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피나는 연습을 해서 능숙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우리는 피아니스트에 대해서는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경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단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원에서 3년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성경을 모두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3년 만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습

니다. 우리가 여기서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학원 3년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3년 동안 신학원에 다니고 나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곳 신학원에서 배운 것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몇 년 전 신학원에서 배운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전날밤 홀로 성경을 연구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만년이 지난 어느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자녀들아, 너희는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닫은 적이 있느냐?”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을 펼쳐 보이시며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하고 물으실 때 우리가 “예, 제임스 닉스 형제는 그 구절이 말하는 게...”라고 말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건 다 잊어버려라. 내가 이 구절의 참 뜻을 알려주겠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책을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계시록 22장,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에서 성경을 끝마치실 때 성령님께서 인간이라는 도구를



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을 떠나서 더 이상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2을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과거 시제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것입니다. 꿈을 통한 계시도 끝났고 환상도 끝났고 선지자도 끝났고 표적도 끝났고 사도도 끝났고 말씀도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방법이 끝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시록 22:18-19을 보세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사야 8:20을 보세요.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여러분은 사람(자신도 포함해서)을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신뢰해도 안됩니다. 여러분은 느낌을 신뢰해도 안됩니다. 여러분은 감정이나 인상을 신뢰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신뢰해서도 안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성경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막 16:15).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느낌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느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좋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느낌을 따라 기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방대해 우리의 전 인생을 걸어도 그것을 모두 연구하고 다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지 물러는 사역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는 수천명의 고아들을 길렀고 그 외에도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다음은 조지 물러가 한 말입니다.

“나의 사역 초기에는 국내 사역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순서대로 꾸준히 읽는 일을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나는 지식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게을렀기에 말씀에 무지했고 따라서 나의 영적인 성장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혼을 지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심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세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 그 세 시간 동안 얻은 것이 지난 몇 년간 얻은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는 성경을 불규칙적으로 읽었다. 그때 그때 읽고 싶은 곳을 읽었다. 그러다보니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비슷한 부분만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이후부터는 성경을 순서대로 읽었다. 순서대로 반복해서 성경을 읽은 결과 나는 어느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살아 있는 성구사전이 된 것이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다보니 거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역대기상 1-10장도 흥미있게 읽는 수준이 되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부분은 소홀히 여겼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름만 나열된 그 부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읽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셨다. 이제 나에게 는 역대기상 1-10장도 시편이나 복음서 만큼이나 친숙하고 즐거운 부분이 되었다. 나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읽을 것을 추천한다. 나는 아침에는 구약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신약성경을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음식을 풍성하게 마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읽고 인기 있는 부분만 살펴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반복해서 읽는다면 모든 의문은 풀릴 것이다. 나는 성경을 백 번 가량 읽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질려넘어진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만족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을수록 주님이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얼마나 친절하고 은혜가 넘치시며 품위있는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조지 물러는 매일 세 시간씩 무릎을 꿇고 순서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했고 선교사들을 지원했고 수많은 사역을 했지만 성경 읽

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충분히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는 성경연구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 제2과 8가지 성경 연구 방법

디모데후서 2:15을 보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킹제임스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살펴보려는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킹제임스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구하라(study)”는 명령을 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술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출 20:13)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출 20:16)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

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위가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믿고 행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자신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인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마 25:21)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39을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하신 말

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나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신들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탐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탐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은사주의 자들은 성경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을 찾아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출 20:12)고 말씀하신 동일한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출 20:3)고 말씀하신 동일한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과 정확히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예요. 저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계신가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탐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적지 않은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암기하고 읽고 바르게 연구해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첫째 방법은, 성경을 한 권씩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읽는 것은 전체를 읽되 연구는 한 권씩 하세요. 먼저 연구할 한 권을 선정하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세요.

- (1) 이 책의 기록자는 누구인가?
- (2) 이 책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 (3) 이 책은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 (4) 이 책은 누구에게(누구를 향해) 기록된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집트의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아주 오래 전에 이스라엘의 대언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저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 저녁에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자는 쪽지를 주었는데 누군가 그 내용을 읽어본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밥값을 계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저녁을 먹



자는 쪽지를 쓴 대상은 저의 아내이지 그것을 읽게 될 모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의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시기를 위해 기록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특정한 시기와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를 보면 재가운데 앉아서 그릇 조각으로 피부 병이 난 살갓을 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같은 날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고 엄청난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세 친구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고난에 처한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왜 그가 고난당해 마땅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욥기를 아무데나 펴서 읽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지만 욥에 대해서는 틀린 기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은 옳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욥에 대해 한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이 처한 상황과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그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욥 19:25) 저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 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욥이 그분을 알기도 전부터,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욥의 구속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다른 부분을 보면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욥 2:4)라는 구절도 나옵니

다. 이것은 사탄이 한 말이고 사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테반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4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이제 더 이상 좋은 날을 못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애가를 읽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고 울부짖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에 기록된 고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60년 대에 포크송 가수들은 전도서의 내용을 즐겨부르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전도서를 좋아하며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내용은 해 아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연구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 기록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한 책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바로 그 책의 내용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에 대한 것인지, 시인지, 역사인지, 예언에 대한 것인지, 교리에 대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딤후 3:16)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성경학도라면 신약 교회의 교리를 에베소서에서 세우지

사사기에서 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 사람을 조각으로 잘라서 상자에 담아 각 교회의 회원들에게 택배로 배송해야 할까요? 사사기를 보면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사사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무도회장에 가서 춤추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세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온 배우자를 얻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약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실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는 역사서가 있고 교리서가 있습니다. 시편의 경우 시와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교리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시편에는 예언도 있고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나온 다윗의 시편 중에는 원수의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이 기쁨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이기는 하지만 신약 교회의 교리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한 권의 책을 연구하는데 그 책의 주제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요엘서는 기본적으로 예언서입니다. 요엘서에는 피와 연기와 표적과 기적에 대해 말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어떠한 것인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피와 연기와 표적과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각자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요엘서는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고 해당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의 한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의 일반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의 요지(keynote)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입니다. 누가복음의 요지는 “인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각 책마다 서로 다른 요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책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지적하고 있고 바로 잡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의 많은 책들은 특정한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는 구원을 율법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천사송배의 오류를 지적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골 2:18). 또한 골로새서는 인간의 철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두려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휴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서신서의 경우 교회들 사이에 퍼져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주고 있는 실행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

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구하고 있는 책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 교회내에서 형제자매들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체들을 용서하고, 친절히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실행해야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연구하고 있는 특정한 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약속과 예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에 특정한 사람의 전기가 나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의 책들 중에는 등장인물의 전기가 기록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서, 욥기 등은 그 자체가 한 사람의 전기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은 여러 사람의 전기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의 경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등은 다양한 여러 사람의 전기로 가득합니다. 그 책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의 경우 대략 20여 군데 이상에서 창세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와 히브리서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의 연대와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포함된 66권의 책들은 기록연대나 순서에 따라 정렬된 것이 아닙니다. 성

경을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려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경우 여러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성취되는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고난 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은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알맞은 책인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기는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이 책들은 당시의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실제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신약 성도들의 실행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개와 스가라는 성전을 재건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에만 돈을 써버린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을 위해 얼마의 돈을 쓰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쓰는지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재건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것으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책들 중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빌립보서)’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베소서)’,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로마서)’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책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자

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봅니다.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느낀 것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가랴, 호세아, 요엘, 계시록 등에 나오는 예언과 종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출애굽기 이후에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에스겔에 나온 여러 가지 환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지 얼마 안된 사람 중에는 재림 시에 주님의 입에서 진짜 불이 나오는지 궁금해하지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불 같은 말을 절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한 권을 연구할 때 그 책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둘째 방법은, 주제별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랑(love)”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할 때,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는지, 사랑이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비슷한 말인 ‘charity’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등 사랑에 대해 공부하려고 해도 한 달은 족히 걸립니다.

“거룩”이라는 주제에 대해 공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족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단과 거룩한 제사장직과 거룩한 의복과 거룩한 희생제물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록에서

는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외에도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주제들은 많습니다. 믿음, 구원의 확신, 하늘나라 등 수없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할 때도 성경의 책 중 한 권씩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매 구절 믿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에 대해 연구할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심에 대해 연구할 때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들을 보면 누군가가 회심할 때 무엇인가로부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어떻게 복음과 연관시키는지 회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회심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 주님을 증거하고 싶다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만큼 좋은 안내서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거리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 두 배를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설교를 보면 항상 죄에 대해 지적하면서 그 두 배 이상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리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통해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가지 주님의 복”과 “일곱 가지 승리”가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안다”는 게 무엇인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느니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주제별로 성경을 연구하되 한 번에 한 권씩 하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일곱 가지 걸음(seven walks)”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다섯 가지 귀중한 것들”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일곱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연구할 만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경 연구는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무런 유익도 없이 무익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 성경의 금광에서 엄청난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성령님의 일곱 가지 사역”과 “기도의 일곱 가지 목적”과 “말하지 않아야 될 일곱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에는 “be로 시작하는 18개의 구문”, “15개의 of God”, “11개의 of Christ”, “일곱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셋째 방법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유사한데, 핵심 단어(key word)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주제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빛이 무엇이고 이 빛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명칭들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말씀”이나, “어린양”이라고 불리는지 살펴보고 구약성경에서 어린양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서로 연관성을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캄캄한 어둠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지으신 장면도 요한복음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예루살렘에서는 어린양이 친히 빛이 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핵심 단어별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속”이나 “소망” 같은 단어는 물론이고 “그리고(and)” 같은 단어도 충분히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but)”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앞뒤 문장을 극적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3에서 우리의 지난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

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 짐을 볼 수 있습니다. “금홍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임에 감사합니다. 진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분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금홍이 풍성한 하나님”인 것입니다.<sup>3</sup>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나(but)”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단어씩 연구하는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넷째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생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쓰셨고 그는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눴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살펴보고 신약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의 믿음, 불순종, 실패, 승리, 그리고 그가 받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다섯째 방법은, 성경을 연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읽기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경을 연속적으로 읽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연속적으로 순서대로 읽으면서 연구하면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 나오고 출애굽기로 이

<sup>3</sup> King James Bible에서는 4절이 “but”으로 시작합니다.-역주

어집니다. 출애굽기는 속박에 대해 나오고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경배에 대해 나오고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에는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은 문에 바른 어린양의 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을 신약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죄가 가져온 속박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록은 인간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거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요약에는 모두 어린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순서대로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순서로 성경을 한 데 엮으신 것이라면 성경을 순서대로 연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연결해서 보면, 타락과 율법을 주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기부터 역대기까지 연결해 보면, 왕권 아래 있는 정부의 설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에는 찬양과 경배와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과 권위에 순종해야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기본적인 교리를 배웁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을 실제적으로 섬기기까지는 배운 교리를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 배우고 나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섬기기 시작해야 참된 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보다 사도행전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보다 사복음서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에 대한 교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고(사복음서), 섬기고(사도행전), 교리를 배우고(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서신) 나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요한서신과 일반서신)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에 대해 승리하고 악한 자를 이기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하늘로 올라가게(계시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기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위에는 여전히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한 사람의 악인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체 유대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욥기에는 42장(42개월)을 통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잃고 마귀에게 박해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회복하시고 그의 건강과 재물을 모두 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왕들이 모여 주님을 대적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며 비웃으시는 것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성경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순서대로 연구하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상징적인 진리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히브리어 성경과 다른 순서로 엮여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4:4-6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킹제임스성경의 구약은 경고로 끝나고 있지만 경고만이 아닌 복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의 유업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므로 전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기하 36:23을 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지금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구약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구절은 역대기하 36:23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흥미롭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는 킹제임스성경의 구약과 유대인들의 성경은 정확히 같은 것을 담고 있지만 순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서로 다른 것도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연구해야 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연구함으로 인해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섯째 방법은, 연대기순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엮은 순서대로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대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기를 읽으며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은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부분을 볼 때, 시편 51편으로 가서 다윗이 주님께 회개하는 것이 기록된 부분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무엘기로 돌아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치워 버리셨으므로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은 시편 32편으로 가서 다윗이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시 32:1-2)라고 노래하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연구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 전에 사용하던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을 주제별로, 핵심단어별로, 한 사람씩, 연대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책을 준비해서 맨 윗 부분에 “휴거”라고 적으세요. 다른 페이지 맨 위에 “적그리스도”라고 적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맨 위에는 “대환란”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 맨 위에 “영원”이라고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관련된 핵심 단어를 적으면 대략 25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휴거와 관련된 것이 나오면 첫 페이지로 가서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나 대환란에 대한 것이 나오면 해당 페이지로 가서 관련된 것을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관련 기록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성경책 위에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요 5:39)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신실하지 않은 성

경학도나 열심이 없는 성경학도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덩이가 아무렇게나 길에 굴러다닌다면 금덩이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금덩이를 발견하면 매우 흥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금덩이가 아무데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진리를 여기에 조금 기록해 놓으시고 저기에 조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진리를 한 군데에 모아두지 않으신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한다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굶주려 있다면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광부라면 찾고자 하는 광물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루이틀 정도 땅을 파보고 나서 “에이, 아무것도 없네 뭐. 나는 금덩이를 찾을 수 없을 거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보고, 탐구하고, 깊이 파보고, 날날이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결국 성경의 보물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의 금덩이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곱째 방법은, 체계적으로(조직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모든 관련 구절을 한데 모아서 면밀히 비교하고 조사한 후에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처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연구할 때 성경에 나온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정리할 때는 한두 문맥만 살펴보는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을 살펴보고 검토한 후에 교리로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구원 받은 직후 성경을 연구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교회에 속한 형제들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그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는 성경의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교리로 만들어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후에 저는 그들이 가르친 주제와 연관된 구절 중 그들이 검토하지 않은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발견한 구절을 관련 구절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어떤 선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나 형제교회의 형제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믿지는 않고, 침례교회의 형제들은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는 않는다.”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례교인 중에는 “저는 킹제임스성경이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그렇게 “목사의 권위”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연구할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관련구절을 찾아봐야 합니다. 휴거에 대해 연구할 때에는 모든 관련 구절과 더불어 성경에 기록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개인적으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좀더 여러 번에 걸쳐 단체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A.D. 33년에 주님의 부활 후에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의 무리(구약 성도들)가 있고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신약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의하면 환란 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목베임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환란 증인들과 환란 성도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교회의 목사님께 휴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휴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



는 그렇다면 성경에는 세 번의 휴거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로들에게로 불려가 휴거는 오직 한번 뿐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무엇이냐고 묻자 장로들은 그저 “그것은 휴거가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조직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저는 그 가르침대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신학체계가 성경의 진리보다 위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예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매우 놀라우면서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조직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모든 관련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것이지 전체 관련 구절들 중 일부분이나 혹은 한 구절의 일부분만을 취하여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관련 구절을 살펴보는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면 그때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구절, 내가 믿던 것과 다른 구절이 나오면 나의 교리와 나의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자신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교리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러한 자세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30~40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니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년을 교회에 다녀도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여덟째 방법은, 하나의 본문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5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의 본문이고 하나의 구절입니다.

본문에서 “내가”)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가죽 코트를 입히셨으며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 내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으며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신 분입니다.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찾아봐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할 것이요(will)”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항상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심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받기 원하시고(벧후 3:9) 또 구원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살전 4:3).

“적개심을 두리니” 성경은 평화만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항상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데 모아 잘 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 가운데 적의를 두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큰 적개심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적개심일 것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과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도 적개심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과 바른 것 사이에, 진리와 오류 사이에 적개심이 있습니다.

“네 씨” 지금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14절에서 주님께서 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15절에서도 “여자의 씨”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계속 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뱀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뱀과는 다른 뱀이 분명합니다. 이 뱀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마귀도 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

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자의 씨” 여자는 타락해서 남자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공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여자에게 진노하셔서 단순하게 여자를 쫓아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여자를 책망하시거나 인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망쳐버린 여자를 원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겠느니라. 너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한 사람이 네가 망쳐놓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훈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브를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진 바로 그 상황에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에게 큰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 결과 우리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씨” 라는 표현은 연구해 볼 만한 말입니다. 본래 “씨”는 남자에게 속한 것이지 여자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15의 말씀은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나게 될 한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베들레헴을 거쳐 갈보리를 지나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님께서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까? 이 자는 머리가 있고 씨도 있으며 여자의 씨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씨는 갈보리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아마겟돈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불호수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요”라는 말씀은 큰 상처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뱀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씨로 가면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인간의 죄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나도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5)

이와 같이 창세기 3:15 하나로 성경의 여러 주제를 가르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전체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구절을 몇 달 동안 연구하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자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설교가 생명력은 전혀 없이 무미건조한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어떤 경우는 수십년 전에 신학교에서 배운 걸 말만 조금 바꿔서 그대로 재탕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연구한 상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보고가 있어요. 그걸 캐내어 성도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연구하세요. 요한복음 3:16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은 “For”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구절에 대한 설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공부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사”(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옴) 여기서 시제를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loved).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입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랑을 입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so)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 표현 할 수 없기 때문에 “so”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세상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특정한 어떤 세상(the world)”입니다.

“주셨으니” 사랑은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기를 제공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아담에게는 가죽 코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대신해 바칠 제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장자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어린양의 피를 주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신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마치 수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선물받고 나서 작은 카드에 고맙다고 써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것만으로도 한달 내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아들은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아들입니다.

“유일한(only)”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독생(begotten)”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Son)”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기에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든 거짓 종교가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회원 등록하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조나 신앙고백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 받기 위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얻게(have) 하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젠가 구원 받게 되는 것인가요? 언젠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가요? 성경은 주님을 믿으면 현재 시제로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 동시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영생을 가진다고 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바로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 죽지않고 영원히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고 유지시키십니다. 또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만일 성경을 열심히 찾고 탐구한다면 요한복음 3:16은 연구할 부분이 매우 많은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연구한다면 요한복음 3:16, 한 구절을 6개월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구절을 체계적으로(조직적으로), 연대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핵심 단어를 찾아가며, 주제별로 가르친다면 6개월간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왜곡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목사가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십일조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런 식으로 십일조와 관련 지어서 설교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순식간에 지나가면 적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거리라도 천천히 걸으며 간다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른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면 끝없이 넓은 파란 물결만이 보일 뿐

입니다. 그러나 산소통을 매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생물들을 보게 되고 그 경이로움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속 300킬로미터로 성경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얻는 게 너무 적습니다. 이제 속도를 늦추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성경의 길을 걸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바다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태평양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다 속에 들어갈 때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다 속에서는 전에 보았던 것도 빛이 다른 각도에서 비취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3과

## 성경 연구를 위한 21가지 열쇠

성경 연구 방법 셋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 연구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의 열쇠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만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읽지 않는다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교양 서적을 읽듯이 읽어서는 결코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교과서 읽듯이 읽거나 과학서적 읽듯이 읽거나 역사책 읽듯이 읽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25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사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셔야만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닙니까? 같은 장 27절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낸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 하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9-10을 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건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고 싶어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계시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14:25-26을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으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성경 연구가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유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26-27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성경 연구는 기도와만 짝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야 할 것이 바로 말씀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배운 성경을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형제님이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매일 주님의 말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하루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이런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역은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13-14을 보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저 진리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강제로 집어 넣는 분도 아니세요. 만일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면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밀어넣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끔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병거를 타고 가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8:30-31을 보세요.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

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내시는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내시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어떻게 내시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이디오피아 내시를 진리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빌립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빌립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시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로 내시를 진리로 인도할 때, 빌립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다. 빌립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고 성령충만한 사람인지 자랑하지도 않았습다.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께서서는 빌립을 진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내시는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결코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다. 그런데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여러분이 원해야만 성령님께서서는 인도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빌립을 보세요. 성령님은 빌립을 진리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지 못한 내시에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열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21가지 열쇠입니다.

첫째는, 읽은 것을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은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읽고 읽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이 생각나고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없습니다. 처음이나 두번째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익숙해질수록 관련 구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관련 구절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무 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다면 성령님께서 진리를 인도해 주실 수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알게 된 것도 이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줍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을 때 그 질문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결국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는 부분에서 질문을 해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야말로 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구원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 받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저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회 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와 교회는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보다 한 시간 먼저 학교로 가서 근처에 있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시간 동안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형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함께 집에 돌아와 복음 증거를 할 때 답하지 못한 질문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도 답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한 번은 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시 동일한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때는 답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던진 질문은 성경연구의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 자체로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성경은 두꺼운 책이라서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막힌 질문이야말로 성경 연구의 좋은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결코 추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이라면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보세요.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근거로 함부로 추측하지 마

세요.

다섯째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책들과 주석들과 자료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책은 전혀 볼 필요가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 책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 놓은 겔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딤후 4:13) 사도 바울도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을 읽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읽을 필요가 없다면 교회에서 설교는 왜 듣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라 (preach the word)”고 말씀하셨습니다(딤후 4:2).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세우라.”(살전 5:11) 설교를 그대로 글로 기록하면 책이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지체를 세워 줄 수 있는 것처럼 책을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단 한 시간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1976년 12월 17일에 구원 받은 이후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단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나 그리스어 단어를 공부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리스어를 알았으면 성경을 더 잘 알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그리스어를 배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어떤 여호와의 증인<sup>4</sup>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저와 논쟁할 때였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펼쳐가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거꾸로

<sup>4</sup>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지옥의 존재 등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믿지 않는 이단 종파입니다.-역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던 그 자신도 그리스어 자체를 하나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때 이후로 저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완벽한 성경을 주셨다면<sup>5</sup> 우리에게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 성경이 필요없습니다. 완벽한 성경이 있다면 왜 다시 원어를 확인해야 합니까? 원어를 확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완벽한 성경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완벽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성경의 일정한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해 봐야 합니다.

일곱째는, 읽고 있는 부분이 신약이나 구약 중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꽤나 기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읽고 있는 부분이 위치적으로 구약이나 신약에 속했는지만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 자체가 신약에 위치해 있더라도 구약에 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본문을 읽을 때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구약의 진리인지 신약의 진리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속하는지는 교리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구약의 경우 율법이나 예언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신약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나 신약 교회의 지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성경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형, 그림자, 모형, 그림, 예언, 약속 등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

<sup>5</sup> 여기서 저자는 영어 King James Bible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들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으며 승천하여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맥이 구약에 속하였느냐 신약에 속하였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덟째는, 읽고 있는 책의 문맥은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 책이 누구를 향해 기록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 기록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역대기와 매우 다릅니다.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담은 역사서인 반면, 에베소서는 신약 교회에 보내시는 성령님의 편지입니다. 각자 다른 목적과 독자를 향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는 거듭해서 “해 아래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관점으로 인생을 평가한 책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다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골 3:3) 이미 구원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의 관점과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특정한 책에 속한 문맥을 읽을 때 이 책은 누구를 향해 기록되었으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 시대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의 있습니다(계 16:2, 19:20).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

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천막을 치고 7일을 거하면서 주님의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각 책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홉째는, 읽고 있는 본문의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에서 특정한 구절을 뽑아서 앞 뒤 구절과 상관없는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구절들은 앞 뒤 구절과 연결되어 있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가…스스로 목을 매니라.”(마 27:5)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눅 10:37)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27)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기뻐하니라.”(눅 13:17)는 말씀도 있습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는 이 네 구절을 한데 모으면 어떠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네 구절은 각각의 문맥에 상관없이 떼어내서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을 인용할 때 문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째는, 읽고 있는 본문의 장과 절의 문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또 어떤 책인지, 책의 어느 부분인지, 어느 장인지, 어느 구절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거짓을 진리인 양 포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구절의 절반만 인용하거나 혹은 한 절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로 인용합니다.

우리는 치유가 보혈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치유(회복)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놓임받는 사실도 믿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사 53:5)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거짓 신유가 성경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스테반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돌팔매질을 당해도 고침을 받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만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고침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살전 4:16)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는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육신에 적용시킨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병약한 채로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거짓 은사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하시는 구절은 절반만을 가져온 것이거나 문맥과는 상관없는 구절을 가져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요 11:35)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울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 2:40)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어린시절을 보내셨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성장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열한째는,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사탄의 말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인 사탄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욥 2:4)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이 말을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말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롬 5: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2:4이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고 마귀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의 내용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둘째,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십 일 동안 누워있으라는 말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겔 4:6)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저는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지낼 것을 명령하는 구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사 20:3)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대상은 주님의 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저를 책망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창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호 1:2)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대상도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님이 명백합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개개의 모든 말씀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주신 사람들은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을 듣는 이가 누구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열셋째, 말하여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제 생각에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게 이런 거 같은데요.”라고 하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절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그 구절이 말한 그대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우 일부이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3:3).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목적물(육이 아닌 영)이 다를 뿐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니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넷째, 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가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은 매우 이상한 책입니다. 역대기상 앞의 9장은 왜 성경에 기록된 것일까요? 이것은 한번쯤 떠올려볼 수 있는 의문이 아닐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신학적인 어떤 내용보다 사람들을 더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닐까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 부분을 쉽게 읽지는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과 상관도 없고 그들의 이름을 읽는 것에 흥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 지켜워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은 사람들만이 관심을 가져 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렇고 또 특정한 숫자들의 언급이 그렇습니다. ‘153(요 21:11)’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요 3:7)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서는 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 19:19)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하신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요 3:7)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지 찾아 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왜 했는지, 즉 육하원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보시는 봐와 같이 이것은 읽기의 기본입니다.

열다섯째, 말씀에 특정한 기한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눅 16:16)라는 말씀이 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요 1:17)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제사와 성전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지만 기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것은 주님께서 성전 제사 시스템을 끝내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sup>6</sup>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명령에는 기한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그러한 기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말씀을 누가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한이 있는 것인지와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요 3:7)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말씀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말씀의 기한은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한 말씀에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up>6</sup> 이것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0:11-18을 참조하십시오.-역주



열여섯째,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각각의 단어를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칭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속”, “거룩”, “성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리새”, “미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며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씩 연구해야 합니다.

열일곱째, 비슷한 진리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방금 읽은 곳에서 발견한 진리를 입증할 그것과 비슷한 진리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읽은 진리를 입증할 다른 구절이 성경에 또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성경 해석의 전통적인 규칙입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여덟째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이것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름이 있어도 그 기름을 자동차에 적용해서 주입하지 않는다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문맥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나의 매일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아홉째는, 이 말씀은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자신은 목사나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국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나의 국가와 이 세상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물째,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27을 보세요. “모세와(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이것은 말라기까지입니다)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39도 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존재했던 성경은 무엇이이었습니까? 구약성경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신약성경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주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10도 보세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고 하신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여

러분의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에 대한 말씀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하는 원칙은, 내가 내린 결론에 반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나누면서 “형제님, 제가 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부분인데 좀 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게 자동차나 쇼핑이나 운동경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관한 것보다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에 대해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성경을 연구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영적으로 유익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간과한 점을 다른 지체가 지적해 주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본 것이나 연구한 것이 모든 것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공부해도 전부 다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타이타닉의 선원이 봤던 빙산이 수면에 올라온 것이 전부였다면 타이타닉은 지금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면에 올라온 것이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우리가 연구한 부분이 지극히 작은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본 것이 전부인 양 주장한다면 온전한 진리가 아닌 오류로 빠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는 제가 보고 깨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다고 믿습

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의 일부를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지체가 아직 우리가 충분히 살펴본 것이 아니라고 하며 우리가 생각한 것과 반대되는 구절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에 반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그것을 숙고해보고 다시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창세기 1장에 천사의 창조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역 중에 천사를 만들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 누군가는 제가 진화론자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진화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6일간의 창조 사역 전, 어느 시점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이 분명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주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의 주장과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서 진화론자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 좀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살펴보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을 차리자(be sober)”(살전 5:6)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은 미국인들은 “술취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정신이나 감정이나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분노건, 절망이건, 불신이건 간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be sober”라고 말할 때 그것은

“술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상징적으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둘째 방법은 그 문맥(혹은 구절이나 장)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3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제 이것을 로마서 3:23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찾은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한 곳에서는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불신자는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은채 이러한 구절을 보고 “성경의 모순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9장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나 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하니” 문맥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 눈이 먼 채로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눈 먼 채로 태어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계속해서 9장을 읽어보면 눈 먼 채로 태어났던 사람은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눈 먼 채로 태어나게 원인을 제공한 죄에 대한 이야기였고 주님께서는 그나 그의 부모나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맥을 살펴봄으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신가요? 주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실 분이신가요? 주님의 정부가 끝도 없이 증가하게 될 것인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인가요? 주님께서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가요? 요한복음 18:36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지금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3:2-3을 보세요.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절을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는 한 쪽에서는 자신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쪽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의 왕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두 말씀 다 문맥을 살펴본다면 서로 모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의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지금은 아니니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문맥을 살펴본다면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문맥은 특정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33을 보세요.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갈라디아서 1:10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자,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한쪽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음행에 대해 경고했을 때 그들이 모두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회중 가운데 퍼진 음행의 죄를 경고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을까요?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는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여자

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머리 모양에 대해 지적한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지체들에게 한 말은 그들을 기쁘게 하는 말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24입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구하라.” 27-33절도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의 총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네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문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선교사로 다른 대륙에 있는 먼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닌 그 지역 사람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교리를 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문맥은 여러분의 태도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는 듣는 사람에게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의 침례교회들이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문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갈라디아서 1장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의 동네에 갔는데 거기서는 신발을 신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저도 신발을 벗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동안 신발을 신지 않으므로 제가 여러분의 문화를 존중함을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그렇게 함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여러분은 저의 말에 경청할 것이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발을 벗은 채로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의 목사가 저에게 “우리 동네 주민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목사가 저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죄를 짓는다면 저는 상대

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과 갈라디아서 1장은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26-28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포도주와 주님의 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어디에 “포도주”라는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본문을 보면 “포도주”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잔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신줄 아세요? 그것에 대해 논쟁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료가 무엇 이든 간에 그것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잔에 든 음료가 아닌 주님의 피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 잔에 든 음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언급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문맥을 보시면 피에 대한 언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잔에 실제로 든 음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잔에 든 것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에 든 것이 주님의 피로 변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대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잔

이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잔 안에 있는 음료가 무슨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잔”을 자신의 피로 상징해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서 잔 안에 있던 것이 주님의 피가 아닌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에 있는 것을 다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마 26:27)<sup>7</sup>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잔 안에 든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만일 잔 안에 든 것이 주님의 피라면, 제자들이 주님의 피를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주님께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가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문맥을 살펴본다면 성경에는 결코 모순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

<sup>7</sup> King James Bible에서는 “**Drink ye all of 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 우리말번역이 되려면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는 “너희는 그것을 다 마시라”가 되어야 합니다.-역주

## 제 4 과

## 문자적 성경해석

우리는 지난 번에 성경이 세상의 책들과는 다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고전을 읽기 위해 영적으로 올바르게나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독자의 영적인 자격을 요구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독자의 영적인 자격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살펴본 것은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은 기적과 표적 등이 포함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다른 역사적인 부분과 함께 기록되어 그 사실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혁명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전에 세상에서 정의했던 것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개념들, 즉 믿음, 사랑, 공화, 구속, 구원, 하늘, 심판 등의 개념들을 이전 시대가 사용하던 의미와는 다르게 새로운 정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음식 등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보다 훨씬 깊고 위대한 의미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 받기 전 우리의 혼은 지옥으로 가기로 정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인간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로 인도해 줍니다.

성경은 다른 철학서적이나 심리학서적, 심지어 종교서적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독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믿음과 신뢰와 거룩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저자에게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저자의 인도를 구하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서적이나 논문을 읽을 때 그들이 범한 음행, 간음, 도둑질, 술취함, 거짓말 등의 죄로 인해 자신들이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게 김박사,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 논문을 읽어 본 적이 있나?” “아니, 읽어보게 이리 건네주게.” “자네 기도는 했나? 혹시 요즘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죄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을 걸세.” 이러한 대화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하기 위해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출 필요가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 성경은 다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고 우리의 행함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할 것이고 잘못 해석할 것이고 결국 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 같은 책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읽는다면 더 깊은 진리로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신문은 믿는 마음으로 읽지 않아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단 두 장을 읽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읽으면 읽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오류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비판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비판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접근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 신자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계속 처녀로 지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나서 대여섯명의 아이들을 더 낳은 여자가 처녀일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비평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교에 대해 하나씩 생각해 보고 확인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자세는 이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가르치면 그것을 성경으로 확인합니다. 성경으로 확인한 후에 확증합니다. 우리는 목사들과 성경 교사들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보는 눈먼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찾아보고 비교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하는 말을 다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탐구하라, 찾아보라(요 5:39)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자신들의 말을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거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말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요구하고 찾아봐야 합니다. 누군가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근거를 대고 보여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 구절을 보여준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나 교회나 교단이 하는 말을 아무런 저항없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성경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속 작가들의 책은 아무런 비평적인 태도없이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평적인 생각으로 읽어야 왜곡된 생각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그 교회를 비평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으로 비교해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저에게 제 설교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했다면서 고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3명의 성도가 같은 목적으로 제 설교를 듣는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 하는 말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가 수면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읽고 연구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설교의 본문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바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감정과 믿고 싶은 것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제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임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것들을 더욱 굳게 붙잡을 것이고, 만일 일치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이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나 자신이 정당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세워주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뭔가가 뒤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마치 아버지와 말씀과 킹제임스성경이라고 대답할 기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숨겼나이다.” (시 119:11)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알고 암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연구의 목적은 배우고 암송한 그 말씀



을 적용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것은 진리입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구절이 끝나지 않습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의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 3:17)

그러므로 성경은 다른 종교나 심리학 서적과는 다르게 배우고 깨닫기 위해 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적용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여러분으로부터 어떠한 성경적인 행동도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맥을 따라 한 절씩, 한 단어씩 설명하는 강해설교가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인 이유입니다.

어떤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후임 목사를 선택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성경의 한 절만 딱 떼어서 설교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가 얼마나 능력있는 설교자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의 강력함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중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언변이 아닙니다. 회중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은유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부분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성경에는 유형과 모형과 그림자가 나오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비유라고 명백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때에는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문자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자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번역할 때, 암소, 빵, 막대기 등의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지, 암소가 호수가 되거나 빵이 불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소는 항상 암소이며 발은 항상 발이고 막대기는 항상 막대기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기록한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단순한 이야기로 보이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란한 태양 빛이 아침 이슬을 가르고 비추면 당신은 맑은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살아 계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여운 허풍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말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걷고 일하고 먹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빠르고 느리고 작고 크고 아름답고 강하고 의롭고 불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면 누구나 어떤 글을 가지고도 자신이 원하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언어 이해 능력”입니다. 성

경은 인간이 읽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몇 군데에서 신비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 신비가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8:1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마리아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았음을 느끼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두 여인에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무덤 앞에 선 두 여인은 새로운 희망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바르게 해석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한 단어 한 단어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1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항상 토요일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다른 날을 의미한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주의 첫날이 밝아올 때 두 유대인 여인이 무덤에 온 것입니다. 본문은 새로운 희망이나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같은 것은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는 시간적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문은 이것 외에 다른 무엇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 두 유대인 여인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여인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지진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지 삶의 희망이 무너져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말하지 않습

니다. 당시 발생한 사건은 지진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여인의 심리 상태가 어떠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진이라는 단어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진은 언제나 지진을 의미할 뿐 입니다. 말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진의 의미가 무엇인 가요?”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해 줄 겁니다. 지진은 항상 지진을 의미합니다. 거 기에는 다른 어떤 영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본문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지진은 항상 보통 사회에서 의미하는 그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 기 때문이더라.” 어떤 강한 남자가 와서 돌을 치워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센 남 자가 붙잡힌 두 여인에게 너무나도 친절해서 그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 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 이유를 아 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천사를 천사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천사는 하 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러 놓은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돌이 굴러간 게 아니라 천사가 굴린 겁니다. 천사가 돌을 굴린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게 하 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사가 돌을 굴러 놓은 이유는 사람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돌이나 나무를 불문하고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 다.

3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이 것은 천사의 옷이 눈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덤 근처에 눈이 있었다는 이야 기도 아닙니다. 천사의 옷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흰색이었습니 다. 얼마나 하얀 색이었나요? 본문은 눈과 같이 희다고 합니다. 천사의 옷 색깔을 설명하는 부 분에서야 비로소 비유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유법이 나와도 문자적으로 해

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라는 표현을 볼 때 모두 흰 색을 연상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두 똑같은 것을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눈은 전세계적으로 밝게 빛나는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다시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떨었습니까? 떨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같이(as)”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는 길에 죽은 사람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가만히 있게 됩니다. 본문의 비유가 문자적이기 때문에 해석도 문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록된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제가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다고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무덤에 찾아간 여인은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막 았던 돌도 굴러갔습니다.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모두 문자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표현 그대로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

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신문이나 책이나 뉴스나 연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오직 성경을 읽을 때는 기록된 의미 뒤에 무엇인가 비밀스런 것이 있을 것이고 비유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의 사역에 감사한다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형제님의 설교와 성경공부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형제님은 천사가 날개가 없다고 가르치시나요? 저는 날개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말이예요.”

자신의 경험을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제가 경험한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면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제가 날개가 달린 천사를 실제로 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천사는 날개가 없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본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다르면 저는 항상 성경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다시는 보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본문의 모든 2차적인 의미는 모두 선행한 구절의 문자적인 해석에 달려있습니다. 상징, 은유, 모형 등은 모두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자적 해석을 떠나서는 비유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5에서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할 때, 씨뿌리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해석에 의하면 씨뿌리는 자는 인간의 아들인 예수님 본인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양은 무엇의 비유입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를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비유적인 문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이 정의하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해석은 비유라 할지라도 이미 다른 부분에서 해석한 문자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풀어간다는 것이지 비유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가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상상(imagination)”을 찾아보면 44번 나오는데 모두 부정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0:5에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들은 모두 잘못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여자가 저에게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녀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말 바람을 뺐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걱정하거나 공상하거나 혹은 잡담을 하고 있을 때 작은 목소리가 “네 남편이 바람피고 있어.”라고 속삭여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바로 성경으로 달려가서 나에게 말하는 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목사의 자격에 대해 상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부부에 대한 것이었는데 부부가 모두 저희 교회에 다녔었는데 남

편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혼을 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냥 교회 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새로운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고 교회는 다시 그에게 목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저와 상담하던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는 일평생 단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는데 아내가 죽을 경우는 예외가 발생하고 이 부부의 경우 자매가 바람을 피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 없어서 남자는 아내가 죽었으므로 재혼을 해도 살아 있는 아내는 한 사람이므로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상대로라면 동네에서 전부인을 만나면 유령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모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성경 해석에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문자적 성경 해석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줍니다. 성경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렘 17:9)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어떠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의 마음과 머리에서 떠오르는 모든 상상과 생각을 잡아서 성경에서 실제로 하시는 말씀과 비교해 보고 그것에 복종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가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 그것이 사실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성경과 비교해 봄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지만 전혀 엉뚱하게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여호와와 증인들의 경우가 가장 심한 경우일 겁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자신들의 상상을 더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와 증인들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바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실이지 비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비유라고 가정하고 다시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항상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눅 12:16)라는 식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19을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계속해서 2-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핏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도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어떤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존했던 사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고 몸에 상처가 있었고 받은 의료 혜택이라고는 개한테서 받은 게 전부이고 유일한 희망은 부자가 먹다 남기고 버리는 것이 많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살았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22절도 보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었다고 해석해야지 다른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 죽지 않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묻히게 되었다는 기록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23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남자였고 부자였으며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집에 살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것이 비유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서는 선행한 구절이 문자적으로 사실일 때에는 뒤에 오는 구절도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주석가들은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 7:23) 성경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모두 지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sup>8</sup> 성령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기록하실 때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이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생명책을 들춰봐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왜 생

<sup>8</sup> 이것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3:5, 13:8, 17:8, 20:15을 참고하십시오. -역주

명책에 없는지는 참조 구절들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만이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해석방법입니다.

문자적 해석을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적 측면입니다. 문화적 측면을 보기 위해서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시대에는 중동의 문화를 따라 사람들이 넓은 다락방에서 모여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수도시설이 잘 건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단지(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시대의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면 2천년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할 것입니다.

동물의 배설물이나 풀로 아궁이에 불을 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눅 12:28)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덤가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덤은 많이 다릅니다. 당시의 무덤은 주로 한적한 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덤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발을 씻어 주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은 대체로 깨끗합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흙먼지가 일어나는 곳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6:16, 고전 16:20, 고후 13:12, 살전 5:26). 우리는 비누가 있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은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시대에 살았다면 사람을 만났을 때 결코 악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을 잡고 악수하지 않고 입맞춤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을 주는 좋은 설교일 수 있지만 관련 구절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주셨고 계속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설교이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설교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순적인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사실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된 삶을 산다고 해서 저절로 성경을 알게 되는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고 경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매우 제한적이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목사라면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

고 있는데 청중의 절반이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모의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역에 대한 본문을 찾아서 여러분의 대적을 정죄하는 설교를 준비하게 잘못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때에 특정한 본문을 읽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 성경 해석은 우리를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상상으로부터 지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지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설교자가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 제5과

## 점진적 계시의 원칙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본문이 다른 특정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을 스스로 제안하고 있지 않은 이상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항상 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언제나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경의 본문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문화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덤에 대한 기록들이나 발을 씻어주는 행위에 대한 본문이 문화적 해석의 대상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살펴볼 것은 성경을 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원칙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성경의 진리는 “점진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라는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 계시의 원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점진적 계시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에게 성경의 66권을 모두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년 동안 자신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주셨으며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받아 자신들의 시대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더 많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처음에 계시를 받은 사람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에 기록된 본문은 항상 최근에 기록된 본문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저는 죄를 지으면 어린양을 잡아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물로 드려 저의 죄를 대속하게 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메시아가 와서 죄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함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읽게 되면,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기록된 신약성경의 빛으로 예전에 기록된 구약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 6:14-22).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6:31). 이렇게 성경에서는 한 가족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가장 최근에 주신 계시로 이전에 주신 계시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그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1-5를 보세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 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속박입니까, 자유입니까? 속박이 먼저 나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먼저 나옵니다. 종노릇하는 것과 아들로써 가족으로 입양된 것 중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종노릇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데 율법에 대한 말씀과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종에 대한 말씀과 입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며, 속박에 대한 말씀과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저는 이전의 계시를 최근의 계시의 빛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싶으신가요? 교황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안식교인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해석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며 점진적인 계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계시를 마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약성경의 유아적인 신학에서 신약성경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인도하신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녀탄생과 고난받는 메시아와 쫓겨난 지불에 대해 잘못 이해했습니다. 구약성경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무엇을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러한 것이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첫번째 유월절 밤에 문기둥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으로 인해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던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인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 받는 것의 모형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출애굽기만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신약의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만으로는 결코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신약의 진리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계시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어린양의 피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진적 계시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말하면서 그 피를 여러분 집의 문에 바른다면, 여러분은 신약의 진리에 맞춰 구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진리에 맞춰 신약을 해석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나 구약성경의 제사나 희생, 그리고 축제나 명절은 모두 그림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성경이 그리고 있는 모든 모형의 실체가 되십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B.C. 1000년경 어느날, 여러분이 어린양을 가지고 성전 앞에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와서 “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겠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은 그 이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말이야, 1000년 후에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모형으로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때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처럼 알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계시되지 않았고 주어지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때가 되기까지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죄 헌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임을 알고, 태우는 헌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2천년 전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3:14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림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불뱀에 물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자 그것을 쳐 다본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그렇게 뱀을 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를 대속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다가 뱀뱀을 보고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리가 아직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해 주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지나간 시대를 비추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주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에 비추어 이전의 것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라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두려워했던 내시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시가 이사야 53장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지 아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수백년 전에 받은 예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가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단지 추측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당시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추가적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구약성경의 진리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신약성경과 마찬가지로 향상된 계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시의

패턴은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범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더 깊고 높고 분명한 의미를 밝혀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출 20:1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마 5: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욱 크고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서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출 20:14)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 5: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크고 넓은 계시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통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훈육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교리를 온전한 계시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은 철자(알파벳)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와 문장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을 보세요.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간 때”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수백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수백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다가 아브라함에게

게 나타나서 갈데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후에 또 다시 수백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백년 동안 속박되어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 기적, 대언자, 제사장, 나귀, 남자, 여자, 소년, 소녀 등 여러 사람과 방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세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씩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무대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거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거라.” “궁홀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보거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아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가르침과 기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서신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시각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만으로 모든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에 계시된 진리들을 풀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을 통해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고 해서 그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중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지

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약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500페이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 내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해석의 원칙”, “문화적 해석의 원칙”, 그리고 “점진적 계시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2:20을 보면 아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 이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곧(soon)” 오신다고 하지 않고 “속히(quickly)”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면 빠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17절에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는 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신부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세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성령 안에서 걷고 있거나,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거나,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하기 원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초대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이

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8-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의 말씀에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경이나 몰몬경이나 그 밖의 신흥 종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나 “예수님의 또 다른 언약” 등을 쓰거나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재앙을 받거나 거기에 참여하게 될 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지역에는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10분 거리에 다섯 개의 독립침례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지역에 사는 어떤 형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젯밤에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은 장소가 없으니 우리집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집 맞은 편에는 독립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을 해야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sup>9</sup>는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몰몬경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

으므로 우리는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의 천사”이거나 “빛의 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원칙은 “역사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성경의 독자들은 계시를 처음 받은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것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처음 계시가 주어질 때, 그 계시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53에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황 신봉자들은 이것을 빵 쪼갠 것이 주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의 빛을 비춰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아직 이러한 진리들이 계시로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무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 빵과 잔을 나누기도 전이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요한복음 6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후에 주어질 계시가 됩니다. 이후에 드러

<sup>9</sup> 조셉 스미스(Joseph Smith), 몰몬교의 창시자로 몰몬경을 창작한 사람입니다. -역주



난 계시로 인해 제자들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인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서 “교통신호를 어김으로 간증을 잃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언제 하신 말씀인지 살펴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미사나 주의 만찬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미사나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인 요한이 요단 강가에 서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침례를 주었을 때,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누군가 침례인 요한을 인용하면서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침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예,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그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 물이라는 것이 믿고 나서 침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요. 오순절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오순절이 이르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

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나 아니면, 육체의 외적인 부분을 씻어내는 어떤 의식을 통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문 기둥에 피를 바를 당시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상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늦밤을 들어올리면서 보고 치유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 죄들을 용서받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구약성경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구약성경에 기록된 사건 자체를 신약의 진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한 그대로의 의미가 일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어떤 것을 처음 말씀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상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일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석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시는 메뚜기가 헬리콥터라고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9장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헬리콥터를 의미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헬리콥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말씀하신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나 전지 하심을 제한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은 주님께서 그 예언을 처음 하

시는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나 단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사 7:14)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사 9:7)라고 했을 때, 이 예언이 선포된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말을 처음 했을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을(예를 들면, 2천년 전에 헬리콥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역주)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말을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낙타 열 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성령님의 열 가지 은사를 상징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이 열 가지 은사를 사용해서 상급을 쌓게 된다.” 이것은 흥미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리브가는 낙타 열 마리를 보고 “이것은 성령의 열 가지 은사를 상징하는 거구나!”하면서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온 엘리에셀의 낙타 열 마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낙타 열 마리는 낙타 열 마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신약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여러분 마음대로 의미부여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일곱 번 그 주위를 돌고나서 무너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일곱 번 돈다고 해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회의한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13-19을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며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야고보는 여기서 아모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암 9:11-12). 아모스는 문자적인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관련이 있으며 천년왕국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청중들 중에 누구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성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고보의 말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것은 “아모스도 이방인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 했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할 때 청중들은 그 의미를 야고보가 의도한 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아모스로 돌아가서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특정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그 당시의 청중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원칙은 “해석과 적용의 구별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1-4을 보세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가 세워지게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문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사랑과 목숨과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악하게 대하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한 것은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읽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구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받는 메시아는 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적용은 저에게 할 수 있지만 해석을 저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본문에는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본문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1-6을 보세요.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의 원칙과 점진적인 계시의 원칙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어린양의 피로 구원 받은 이후에 침례를 받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적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출애굽기에 대한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홍해를 마른땅 같이 건넜습니다. 그 일은 실제로 문자적,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3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물을 주시어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출애굽기의 광야로 돌아가 봅시다. 물을 쏟아낸 바위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바위는 실제로 바위였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광야에서 실제로 입을 벌려 물을 쏟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쏟아낸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바위였습니다. 적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며 목마른 모든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신약성경이라는 향상된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상된 계시와 적용으로 본문의 실제 그대로의 문자적인 해석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해석만 있고 적용이 없어서도 안되고 적용만 있고 해석이 없어서도 안됩니다. 요한복음 3:30을 보세요. 이것은 침례인 요한의 말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것

에 흥미를 느끼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많이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3:30의 영적 적용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을 많은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독자적인 사역을 했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요한을 따르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이러한 일들을 보고 한 말이 바로 요한복음 3:30입니다. 요한이 의도했던 것도 정확히 그 구절과 같습니다. 요한이 의도한 것은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심지어 자신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께로 가버린 것은 잘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30의 해석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다이어트 클럽에서 이 구절의 일부를 벽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must decrease).” 요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이 구절을 다이어트에 적용시킨 사람은 없습니다.<sup>10</sup> 따라서 이 구절은 그런 식으로 영적 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요한복음 3:30의 의미는 당시 청중이 들었던 그 의미 이상의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는 감추어진 어떤 신비로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는 퇴장해야 한다.” “예수님의 날이 밝았으니 나의 날은 저물어야 한다.”는

<sup>10</sup> 이 구절을 이 부분만 떼어놓는다면 “나는 반드시 살이 빠져야 하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역주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자신의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역할을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영적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은 모두 해석한 것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용은 항상 해석의 범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3-4을 보세요. “유대를 떠나다 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라는 주제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에 한 여인이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길을 마다하시고 예정된 대로 그 길로 가서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가막힐” 정도로 놀라운 적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도를 펴 놓고 본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바로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소아시아를 거쳐 스페인까지 다녀오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었겠지요.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를 한바퀴 돌아보신 후에 갈릴리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였을 것입니다. 만일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것이 더 특이한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길로 가로질러 가는 것에서 무슨 굉장한 의미를 찾는 것이야 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코스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장 빠른 길로 질러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어떤 칼빈주의의 가르침이나 예정이나 특별히 감추어진 의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6개월간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다가 이 여인과 대화하시며 말문이 튼 것도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 어떤 교훈을 찾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청중에게 그 구절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나서 영적인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중은 적용을 해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적용은 경우에 따라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해석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11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참되고 진실된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전사이시면 마귀와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절한 적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50가지의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적용으로 해석을 대체하거나 가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 읽기와 바른 성경 연구와 바른 성경 강해는 항상 특정한 구절이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른 해석을 찾고 나서 영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항상 해석의 의미를 바꾸거나 변질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해석, 문화적 해석, 점진적 계시의 원칙, 역사적 해석, 그리고 해석과 적용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제6과

## 분명한 구절 중심의 해석 원칙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거의 사라진 시대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청중들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성경적인 가르침을 건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청중들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된 것과 설교자들이 성경을 더 이상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 평범한 지역 교회의 회원들은 더 이상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과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연구하고 이해해서 오늘날 기독교계를 휩쓸고 있는 배교에 무기력하게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채 단지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와 증인이나 몰몬교 신도들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열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나 헌신 외에 바른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도 오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오류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해석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문자적 해석이 바른 해석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 성경은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마 13:3a)라고 기록함으로 이것이 문자적이 아닌 비유적인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적인 진리들을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경우에도 그 비유의 해석은 반드시 문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영적인 진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마 13:3b)라는 말씀도 비유이기는 하지만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한 씨를 뿌리는 자는 실제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해석 방법 중 문화적 해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병거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그는 2000년 대의 자동차 경주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된 당시의 청중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면 지금의 청중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기록될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확대 해석해서 2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의 상황에 끼워맞추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곡과 마곡에 대해 기록할 때 그는 소련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으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소련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했다면 그러한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도 없을 뿐더러 무슨 말인지 이해

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은 미국이 아니고 마곡도 유럽의 경제적 부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룹을 곡과 마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의 시대에 따라 곡과 마곡의 해석이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곡은 곡이고 마곡은 마곡입니다. 미삭은 미삭이고 두발은 두발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상황에 끼워 맞춰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지도는 항상 변합니다. 성경 기록이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독자들에게도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계시해 주셔서 전대의 사람들보다 후대의 사람들이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전도서의 경우 그 이후에 기록된 다른 신약성경을 통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신약성경을 전도서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며 바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올바른 과학적 사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사용한 과학 교과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단 한 장(chapter)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올바른 과학 교과서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올바른 역사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책과 과학책은 시대마다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이러한 책들을 판단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석과 적용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적용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예로 들면,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습니다. 다섯은 준비가 되어 있고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과 관련 지어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경의 적용은 많지만 해석은 없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에는 본문의 바른 해석은 없고 적용만 있습니다. 어떤 흥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한 후에 성경 본문을 읽고 거기서 청중들에게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적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설교로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귀납법(The Principle of Induc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 등 논리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귀납적인 논증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성경 교사는 성경 본문에 의견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 의견을 끄집어 내는 사람이다.”

믿을 것을 먼저 정해 놓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면 접하는 본문이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 되도록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코 적절한 성경 연구 방법이 아니고 따라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결론을 끌어낼 수 없게 됩니다. 다수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칼빈주의라는 신학 체계를 중심에 놓고 출발합니다. 칼빈주의를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인데 왜냐하면 칼빈은 자신의 신학 체계를 제롬에

게서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인데 이들은 칼빈이 카톨릭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사상을 카톨릭을 떠나지 않은 제롬의 이름을 붙여 이야기 하기보다 칼빈의 이름을 붙여 이야기 하기 원합니다.

칼빈이 믿었던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으며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구원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는 죽으신 것이고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아이들과 아내와 친척 중 일부는 구원 받기로 예정되었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칼빈주의자도 자신의 아이가 예정되지 않았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칼빈주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권적인 은혜”라고 읽게 됩니다. “선택(택함 받음)”이라는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택함 받음)”이 아닌 “개인적인 예정으로서의 택함 받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라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은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유지하는데 행위가 필요하며 따라서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서 바른 행위가 없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누군가가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타락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성경 연구 시작부터 알미니안주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칼빈주의자인지, 혹은 알미니안주의자인지 알기 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무엇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칼빈이 맞는 곳에서는

칼빈이 맞는 것이고 알미니우스가 맞는 곳에서는 알미니우스가 맞는 것이고 둘 다 틀린 곳에서는 오직 성경만이 맞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려면 “신학적인 틀(Theological frame)”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무엇을 믿을지 결정해야지 미리 결정하고 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단들과 논쟁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 낭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와 증인들과 지옥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을 모두 찾아서 두 번씩 보여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리 정해놓은 교리로 성경 구절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교리 체계와 맞지 않는 구절은 다른 설명을 곁들여서라도 그 교리 체계와 맞춰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실화가 아닌 비유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지 단순한 비유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 번 가정해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뜨거운 고통의 장소에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호소하며 울부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 장소가 지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계헨나”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헨나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들은 계헨나가 도시의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 사람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



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4)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은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쓰레기 처리장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거짓말쟁이든지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대한 이런 구절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은 없다는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지옥에 대한 100구절을 보여주고 또 다시 60구절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성경의 제단에 올려 놓고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자세로 성경 연구에 접근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 연구의 초석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지라도 무엇이든 다 믿겠다는 열린 마음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한 것은 더 이상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성경이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가르침을 지지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더 이상 그것을 붙들지 않는 것이지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가장 확실한 해석을 선택하라”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돌아버리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3을 보세요.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교사라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쉽고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주제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70세 노인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7살 짜리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순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혼란스러워 한다면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어렵게 가르친다면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르치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의 목사는 항상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목사는 매우 훌륭한 성경 교사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특정한 주제를 연구할 때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5-6을 보세요.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여기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

기서 “온 세상”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로마서 10:18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문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절에서부터 보면 이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가야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사가 53장의 고난 받는 메시아께서 쫓겨나 돌아오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당시 온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닌 지역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관련 구절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1-4a을 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가 떠서 어디까지 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해가 24시간 동안 지구를 비출 때 온 세상을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지역의 끝”이라고 이해하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성경의 분명한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관련 구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도 무엇인지 보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근본주의 신학교의 교수가 저에게 성경을 정말 문자적으로 믿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소식이 이르렀다고 한 것을 정말 문자 그대로 믿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그 당시에 복음이 실제로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는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고 했더니 그는 가방에서 새 미국표준역본(NASV)을 꺼내더니 자신의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 편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성경을 구입하면 됩니다.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네요. 그 교수는 성경의 분명하고 확실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니 결국 성경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41을 보세요.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4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들 구원 받은 3천명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었을까요? 또 날마다 교회에 구원 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5을 보세요.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도록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매우 지적인 분이십니다. 12사도가 세상 끝까지 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열두 사도에게 나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 두 사람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모든 민족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열 두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기록된 그대로 믿으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록된 그대로 두고 그대로 믿으세요. 고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브를 무엇으로 만드셨는지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이브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는지, 반쪽(side)으로 만드셨는지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아담의 반쪽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인 채로 만드셨다가 여자인 부분을 떼어냈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인 부분은 이브가 되었고 남아있던 남자인 부분이 아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뼈다귀 하나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창 2:22). 분명한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을 믿지 못한다면 흠으로 남자를 만든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나머지 모든 기적과 초과학적인 일들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으로 남자를 만드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머지도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는 항상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항상 분명한 부분의 빛에 비춰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혼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는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한 구절도 본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구절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설명하는 사람은 봤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 구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의 의미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5:29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죽은 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할진대 그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침례를 받느냐?” 제가 이 구절에 대해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으로 무슨 유익을 얻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는 이 구절에 기록된 대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침례의 의미를 믿는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의 의미로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3:21). 침례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다시 일어난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또한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이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린도전서 15:29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 나머지 20개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20개의 평이하고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29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침례에 대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하나의 구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20개의 구절을 바꿀 필요도 없고 20개의 구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의 구절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는 구절은 그대로 놔두고 의미를 잘 아는 20개의 구절을 믿고 실행하면 됩니다.

죽은 자를 대신하여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조셉 스미스도 모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이 만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까지는 그곳을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죽은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갔습니다. 갈보리 이후에는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지옥에 갔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서 셋째 하늘에 갔건, 지옥에 갔건 침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옥에 간 사람을 셋째 하늘로 보낼 수도 없고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이미 죽은 누군가를

위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의 상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29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미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장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주제의 본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분명한 쪽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나 묘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본문으로부터 시작해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에스겔에서는 그룹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에스겔에 나온 그룹을 묘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로 다 다르게 묘사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 않은 대로 두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억지로 풀 필요도 없고 또 그러한 곳에서 성경 연구를 시작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스겔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구원 받고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서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분명하고 평이한 부분부터 연구하고 이것으로 불확실한 부분을 비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3:3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흥미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가시적인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



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남이 일종의 환생이 아닐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2천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침례를 의미하는지,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정결례를 행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말씀의 물로 씻음을 의미하는지를 놓고 종교인들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한복음에는 18개 장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침례나 어떤 물로 씻음 없이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3:5에서 말씀하시는 “물에서 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요한복음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구원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물침례(혹은 물세례)로는 어떤 사람도 결코 구원 받을 수 없음을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람들은 구원 받고 나서 침례를 받았지 구원 받기 위해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원 받기 위해 침례를 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침례의 의미도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 받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 위에 달렸던 강도는 침례를 받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물침례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분명한 구절을 통해 분명하지 않은 구절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요 3:7)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구석진 곳에 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려운 구절은 잘도 찾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주의 만찬이 구약과 신약 중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하시아가 통치할 때 나이가 42세였는지, 22세였는지 어느 게 맞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소위 모순이라고 알려진 구절은 잘도 알고 있는 겁니까?

술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술을 마시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죄인인 점을 지적하면 성경에서 복음에 관한 구절은 아무것도 모르던 그가 갑자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마 7:1)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행 16:31)는 말씀은 모르면서 다른 구절은 잘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는 말씀은 모르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

<sup>11</sup> 주님께서 물로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자는 지금 이 야기의 전개를 위해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주

알고 있는 걸까요?<sup>11</sup>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의 뒤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뒤에는 마귀가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미의 통일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Unity of Sense of Scriptur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약속의 땅은 항상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한 책에서 본 한 단어의 의미를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재건하실 것이라고 역대기나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도시가 신약성경에서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이라면 항상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한 책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면 다른 책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의 책들은 믿음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내에서는 믿음은 항상 믿음이요 은혜는 항상 은혜이며 사랑은 항상 사랑이고 행위는 항상 행위입니다. 왕좌는 항상 왕좌이고 왕국은 항상 왕국일 뿐 책마다 의미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 사용된 단어는 항상 일관되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한 책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다른 책에서는 바뀌어 버린다면 결코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대한 법적인 심판의 결과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 좋은 것만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책에서는 어둠이 나쁜 것이다가 다른 곳에서는 좋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책에서 빛이 좋은 것으로 나오다가 다른 곳에서는 나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에서는 한 번 정의한 것은 일관되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와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 이해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요단 강을 중심으로한 땅에서의 번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바라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불태웠다고 해서 무천년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2천년 동안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천년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sup>12</sup>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을 성경의 한 책에서 말씀하셨다면 성경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반해서 어느날 지옥을 없애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신약성경에서 모두 영적으로 대체해서 성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나중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구약성경에서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어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신약성경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인 기조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거나 마보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제를 복잡하

<sup>12</sup>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현재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훨씬 광활한 지역입니다.-역주

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이 나오면 항상 그것은 말을 의미합니다. 병거는 병거고 강은 항상 강입니다. 성경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까요? 물론 사용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경의 상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상징이 의미의 통일성을 깨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상징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면, 속죄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사람들의 죄가 염소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줍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있는 채로 죽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끊어지기 때문에 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만 성경의 일관적인 의미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결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든 드러내 놓고 말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도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될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속죄 염소에 대한 상징을 구원 받지 않은 채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해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 처녀 비유를 사람들이 흔히 잘못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교회에 적용시켜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그중에 다섯은 성령이 있고 다섯은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다섯이 성령이 있는 다섯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성령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소유하기에 부족하니 성령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뭔가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름은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을 때 성령님을 부어준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거나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을 사고 파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항상 관련 구절을 찾아봐야 하며 다른 구절을 통해 본문의 해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의 한 책에서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며 정의하고 있는 것은 다른 책에서도 일관되게 그 의미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관성을 무시한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 시킬 때 많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담배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연기와 재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담배에 대한 구절을 찾을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의 육신이 아닌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의의 도구로 내어 드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으로 담배에 대한 말씀은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박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한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다급한 목소리로 복권에 대한 구절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박이나 복권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슬

로터신에 가까이 가지 말지니라.”는 말씀이나 “물렛테이블 앞에 앉은 것은 가증하니라.”는 말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현명하게 돈을 사용해야지 도박을 하면서 돈을 날려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그 주제에 대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에 따르면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려 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원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저는 1976년에 구원 받은 이후로 묵회 사역이든, 복음 사역이든, 기도든, 성경 연구든 간에 원어를 알지 못해서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튼 로마 카톨릭은 제대로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성경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경 연구하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구원 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혼자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연구하고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단과 이단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진리를 알 수 있지만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 내가 연구한 진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있으면 상대방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저에게 교리를 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연구해서 알게 된 진리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연구한 내용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잘못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는 수 년에 걸쳐 계속 그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왔습니다. 만일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의 성경 강의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의 책에서도 보지 못했던 것을 성경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아십니까? 저는 저의 서재에서 다시 한 번 찾아볼 것이고 저의 자료들을 뒤져 볼 것이고 다른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아무도 그러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 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5년이나 10년이 흐르고 나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형제가 자신이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전에 제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 한다면 저는 아마 속으로 환호성을 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진리를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은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들고 나옵니다. 이단들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부터도 인



정받지 못하고 확인받지 못한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의 독특한 교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왜 혼자만 그렇게 믿는 것일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사람 단 하나만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교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교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2:27을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확인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전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주님께서는 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성경 교사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엡 4:11-12). 이렇게 단 하나의 구절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것에 제한될 필요도 없고 침례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제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황이나 그 누구의 가르침에 제한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구한 내용이 진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셉 스미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세요. 집에서 혼자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도 모르는 것을 찾아내세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낸 내용이 성경의 다른 진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다른 형제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내가 찾아낸 내용이 “좀 이상한 거 같다”고 하면 끝까지 그것을 고집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지 말고 일단 내려 놓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지만 다른 형제를 통해 그것을 확증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다른 형제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연구에 있어서도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의 전부라면 앞으로 남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지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적 해석, 문화적 해석, 역사적 해석, 해석과 적용의 차이, 귀납법, 분명한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의미의 통일성의 원칙, 그리고 연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제7과 단어 연구 방법

이번 과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연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약속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 하면서 다른 저자들의 책을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교에 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성경학교에서 사용하던 교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어를 연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단어는 생각의 단위이다. 개념의 구조를 채우는 벽돌이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에 있어 단어를 먼저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첫째, 단어는 반드시 성구사전으로 연구해야 한다. 그리스어나 히 브리어에서 어떻게 단어가 파생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단어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하데스(Hades)에 대한 개념 없이 지옥(Hell)을 연구하는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신학교에서 원어를 배워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 교회의 회중도 원어가 없이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원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결국 당신이 있어야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그것을 읽고 연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역사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필사본들도 같은 것을 증언합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 스페인어나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원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풀어놓은 성구사전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신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화 된 대형 신학교들은 자신들의 신학을 지지할 영어 성경을 만들고 그 영어 성경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어 성구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리스어 자체로 성구 사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어 성구 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놓고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스어 성구 사전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영어 성경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구 사전을 자신들의 성경에 맞게 뜯어 고친 다음 그 성구 사전을 다시 증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짓을 하고도 밤에 잠은 편히 자겠지요.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환란(tribulation)”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고통(distress)”, “괴로움(vexation)”, “재앙(affliction)” 등을 의미합니다. 영어 “tribulation”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라틴어 단어인 “trivulum”에서 온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체를 쳐서 곡식과 껍질을 분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묘사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그리스어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때로는 개개인의 인생에게, 또 때로는

자신이 선택하신 한 민족에게 적용시키며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분의 목적은 개인이나 민족을 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만이 개인의 인생과 민족 가운데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4:1을 보세요.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셨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31절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 네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다시 “환난”이라는 단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의 개인이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 전체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의하면 이 모든 경우가 다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네가(thou)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네가(thou)”라는 대명사는 단수를 의미합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 thee, thou, thy라고 하면 단수이고 ye, you, your는 복수입니다. 현대 영어 역본들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sup>13</sup>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환난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마지막 날들에”라는 말씀을 넣으신 것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인데 특히 마지막 때에 더욱 그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개인적인 적용을 예로 들면,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 중에 있을 때, 눈먼 채로 맷돌을 돌릴 때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번 만 더 강하게 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식이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찢기고 상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sup>13</sup> 도시나 국가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 지라도 단수로 받습니다.-역주

는 그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하다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 것은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죄로 인해 40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짓고 30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식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전혀 지키지 않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느헤미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등의 예언자가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대환란도 이러한 역사와 큰 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습니까? 고통, 고난, 재앙 등으로 정의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도 같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해 멸하거나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키질을 해서 곡식과 껍질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사용한 환란이라는 단어는 문맥을 보면 한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4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절이 스스로 단어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제가 4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 잘 들어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원래의 구절에서 한 단어를 바꿨지만 뜻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환난”이라고 읽었지만 구절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같은 구절 내에 동의어를 넣어두신 것입니다.

“환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파멸”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환난은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환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21에서는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30:7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환난은 고난이고, 고난은 환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3을 보세요. “금휼”과 “위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형벌은 끝입니다. 사람이 큰 흰 왕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고 불 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불 호수로 던져지는 것이 바로 형벌입니다.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이것이 고난은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중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 호수에 있는 사람들 중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중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셔서 제 인생의 결과가 겹질이 아닌 알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환난은 고난이며 고통이고 어려움입



니다. 그러나 형벌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련(refinement)입니다. 곡식을 추수했다고 해서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수한 곡식은 키질을 해서 알곡과 껍질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환난입니다. 환난의 끝은 불속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는 우리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단어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21을 보세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환난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끝은 결코 아닙니다. 29-31절을 보세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대환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열매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난이 끝나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국가들의 머리 국가가 되며 메시아께서 친히 왕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환난을 통하여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의 목적은 파멸이나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같은 결과를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달콤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곡식을 구매하실 때 껍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실 때 우리의 인생에 좋지 않은 것이 가득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곡식이 들판에서 자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자란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삶 가운데 더러운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짓는 죄를 그와 분리시키기 위해 고난과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히 8:12)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여러분의 과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징계가 아니라 정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간에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로마서 5:1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믿는 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 있으며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시고 괴롭히기 위해 내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소유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심으로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우리는 주님께 인내를 달라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언제나 환난과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참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내가 있으려면 무엇인가를 참아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는 언제나 고난과 환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가 뉴 스머나 지역의 어떤 교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인데 한 젊은 형제가 자신의 기도제목이라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70대의 형제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God Forbid)”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형제는 젊은 형제가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좋은 것일까요? 인내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인내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더욱 영적이고,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사랑과 영적 성숙함은 체험을 통해 옵니다. 어떤 체험일까요? 그것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체험입니다. 그러한 체험으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고난과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나면 인내와 체험과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의심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형제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서 주신 것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를 미워해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시려고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도와 주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십니다.

이제 다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15을 베드로전서 4:16, 시편 50:23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지 보세요. 먼저 히브리서 13:15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은 찬양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찬양은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15은 찬양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이란, 성경에 의하면 춤을 추거나 팔을 흔들거나 방방 뛰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주님께 감사함을 표할 때 여러분은 찬양의 희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50:23을 보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히브리서 13:15에 의하면 찬양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23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동성연애와 성도착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살인 등의 죄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사람을 이러한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죄가 사람을 다른 모든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롬 1:21).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눈이 죄를 짓는 것에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귀가 범죄치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자신이 향유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한다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16을 보세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른 구절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이 구절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3장과 시편 50편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

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배운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번 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셨나요?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단어를 공부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혼의 양식은 성구 사전이나 원어 사전에 나온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단어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어의 정의를 아는 것은 원어 사전과 관련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경에 나온 그런 정의를 찾으므로 단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정의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나온 단어를 성경에 나온 다른 단어와 비교해 봄으로 우리의 눈은 열리게 되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스트롱 성구 사전”<sup>14</sup>의 단어 번호를 안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sup>15</sup>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는 성경을 연구하기는 하지만 믿지 않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 독립침례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는 성경을 믿기는 했지만 성경을 연구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았습니<sup>16</sup>.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는 이렇게 하세요. 먼저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 구절에 나온 모든 단어를 종이에 쓰세요. 그리고 스트롱 성구 사전을 펴서 그 단어의 원어의 의

<sup>14</sup> James Strong, Strong's Exhaustive Concordance of the Bible, Handrickson.

<sup>15</sup> 스트롱 성구 사전에서는 성경에 나온 모든 단어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전의 뒷부분에서는 그 고유 번호에 따라 해당 원어를 제시하며 단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역주

<sup>16</sup> 오늘날 많은 독립 침례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역주

미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잘못 번역된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고친 후에 당신이 수정한 구절을 토대로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들은 저에게 세대주의와 처녀탄생, 구속, 휴거, 재림 등 건전한 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에게 성경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10을 보세요. “오 하나님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a broken spirit)이라. 오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올바른 영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상한 영입니다. 이것은 모든 자존심과 자아가 사라진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꺾으셨기(broken)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깨끗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러운 영화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바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성경이 스스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위와 선하심과 율법과 주님의 백성이 누구인지와 주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모든 제사와 희생물과 절기와 명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위대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꺾으셔서 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자 그의 마음은 깨끗해 졌습니다. 하나님



께서 그의 영을 상하게 하시자 그의 영은 올바른 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몇 개의 약속만이 전 세계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에 대해 연구할 때 주의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약속의 규모는 전 세계적인가, 아니면 제한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2:17). 이 약속은 전 세계적인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이 약속이 개인적인 것인가와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9-10을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가지고는 감옥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생애에 걸쳐 주어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여러 번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돌팔매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단 하나의 도시에서 단 한 번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다른 도시와 다른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셋째,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행

16:31).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에는 대부분의 경우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15의 경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조건이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가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4:8의 경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가 조건이고 “그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가 약속입니다. 모두 위대한 약속이지만 조건적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7을 보세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정말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구절에서 읽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절의 가장 앞에 있는 “그러하면(And)”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하면”은 접속사입니다. 이것은 앞의 구절과 문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로 주님께 요청해야 7절의 약속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의 조건없이 7절의 약속만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조건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게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본문에 의하면 “나누는 것(communication)”은 “주고 받는 일(giving and receiving)”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

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도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바울의 말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희생적이고 지속적으로 교회의 선교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의 약속은 14-18절의 조건이 있었기에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대한 희생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지원을 한 자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의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며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이 약속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해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동물의 뼈나 곡식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에 동물의 뼈를 부러뜨리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sup>17</sup> 이 밖에도 이상한 행위를 하며 자신들이 믿는 신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펴고는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고르고 그 구절이 약속하는 것이 자신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이상한 행위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 저 구름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오랫동안 간구했습니

<sup>17</sup>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것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역주

다. 그러자 어느날 구름의 모양이 마치 영어 알파벳 P와 S의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내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전하라(Preach Salvation)’고 말씀하셨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의 교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죽어서 하늘에 갔고 거기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서는 아무도 보내 주지 않으신 겁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PS라고 한 것은 ‘Plow Straight(곧게 파라)’라는 의미였느니라.”<sup>18</sup>

1차세계대전 당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을 통해 알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바로 성경을 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6:19이었는데 거기에는 “바다”와 “배”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해군에 입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고 미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신과 상관없는 구절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찾은 구절이 좋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주의해서 살펴본다면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약속들은 모두 그 것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13장과 골로새서 3장입니

<sup>18</sup> 이 이야기는 미국 기독교인들 사이에 농담처럼 화자되는 것입니다.-역주

다. 먼저 창세기 13:14-15를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것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3:1-2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13장과 골로새서 3장은 모두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약속은 서로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이고 이 땅에 속한 약속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약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둘 중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약속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삼박자 축복” 같은 것들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승리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며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시 3:7) “네가 모든 백성들보다 더 많이 복을 받아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너희 가족의 수컷과 암컷 중에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이며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네게서 제거하사 네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질병도 네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넘겨줄 모든 백성들을 소멸시키되 네 눈이 그들을 불쌍히 보지 말라.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옳무가 되리라.”(신 7:14-16) 가끔 이러한 말씀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를

바랄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4을 보세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서는 구약성경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물질적인 것이고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문맥을 살펴보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것인지, 기한이 있는 것인지, 조건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 제 8과

### 문맥을 이해하기 위한 4가지 원칙

우리는 성경 해석의 원칙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5-6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단 하나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수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깨끗하고 올바르며 진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을 바꾸지 않고 거기에 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넘어 해석함으로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구원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느낌을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따르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온전하게 지키고 순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다면 그때 가서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에 항상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거룩한 언약” 따위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언약을 통해 하신 말씀도 지키지 않는데 왜 또 다른 언약이 필요한 것 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순종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결코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교회 헌법이나 규칙 따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가끔 라디오 설교를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곤혹스런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의 라디오 설교자들은 성경에서 한 두 구절 인용하고 나서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개요를 먼저 짜고 나서 거기에 맞는 본문을 찾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가끔 가다가 자기가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좋은 말이나 문장을 엮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연구하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서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만 끄집어 내다 보면 처음 기록된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청중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항상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어의 올바른 정의는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통해 알 수 있고,



문장의 올바른 해석은 문단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문단의 바른 해석은 장(chapter)을 통해 알 수 있고, 장의 올바른 해석은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나 구원이 나 육신 같은 단어들은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황마다 뜻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거나 그 기록의 일차적인 대상이 된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7년에 미국 필라델피아 올랜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문화와 관점이 아닌 타락 전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사사기를 읽을 때 신약 교회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된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원수들을 죽이면서 얻는 기쁨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뼈를 꺾으시고 이빨을 부러뜨리시며 그들을 지옥의 구렁이로 던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내용을 담은 시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들은 신약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으로 적절하지 않은 가사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과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 총맞아 죽은 사람들, 화재로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 하면서, 주님께서 원수들의 이빨을 꺾으시고 그들을 지옥 구렁이로 던져 넣으심에 기뻐하며, 이러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 찬양을 부르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문맥의 배경이 된 문화적

인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던 어떤 사람에게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실재했던 역사 속에서 실재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던 실재하는 국가에 소속되어 살던 실재했던 사람들의 실재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영감받은 한 권의 책으로서 성경에 포함된 모든 책들은 그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 책들은 죄의 역사, 인간의 역사, 구속의 역사 등에 각각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인간은 왜 구원 받아야 하는가,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유주의 목사는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중독으로부터의 치유”에 대해 설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신을 포괄하는 개념의 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신이나, 바람, 태양, 달 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서 한 단어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면 그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가르쳐야 하며 이 세상이나 할리우드에서 정의하는 대로 가르쳐

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들도 작가들의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들이 계속해서 파업하고 복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영화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파업이 계속되었다면 이 나라에 다시 부흥의 물결이 흘렀을지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이 TV를 보거나 극장에 가도 영화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어서 볼 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가장 쉽게 배우는 원천이 줄어드는 셈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이 죄를 정의하게 하지 말고 성경이 정의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정의하게 하지 말고 성경이 정의하게 하세요. 세상이 선행을 정의하게 하지 말고 성경이 정의하게 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이며, 의는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하게 정해진 드레스 코드가 없습니다.<sup>19</sup> 대부분의 교회들의 드레스 코드는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쇼핑센터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단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문맥에서 정의하는 대로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경의 책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sup>20</sup> 우리가 연구하는 책이 구약에 속한 것인지 신약에 속한 것인지 또 문맥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

<sup>19</sup> Dress Code, 드레스 코드란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교회에 올 때에는 이런 옷차림으로 오라고 하는 복식 규정을 의미합니다.-역자

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사야서 34장과 로마서 3-4장을 연구할 때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과 골로새서 3장은 서로 다른 전제와 배경 아래서 기록되었으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드러난 계시가 역사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에는 그 책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 책이 가르치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넷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갈 필요가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특정한 책에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을 보면 그 책의 기록 목적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특정한 문맥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문맥이 속한 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속과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주의 날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제의 빛에 비춰 문맥을 해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은 구원 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주님과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을 떼어다가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주님을 위해 어떠한 행

<sup>20</sup>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성경에 포함된 66권의 책 중에 하나를 가르키는 것입니다.-역주

위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문맥은 책의 주제의 빛으로 비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연구할 때 그 문맥에 선행하는 문맥은 무엇이었으며 뒤따르는 문맥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는 “법(law)”이라는 단어를 6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연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법”이나 “영적인 법”을 의미할 때도 있고 “모세의 율법”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정부의 법률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법(law)”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문화적인 배경에 근거해서 해석할 때에도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유가 나오는 문맥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문맥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위를 하신다고 정죄하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문맥의 앞 부분이 없이 비유 자체만 있다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면 잃어버린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들 및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그러한 행위를 문제시하는 문맥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주님께서 양이나 동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삼중적으로(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셨

으므로) 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과가 시작되고 오랫동안 성경을 찾아 없어서 불만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마태복음 16:28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1-3을 보면 “옛 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영광 중에 계신 모습으로 변모하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땅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8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28의 말씀은 17:1-3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51-52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살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

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빵을 만들고 사제들이 그것을 떼어 주면 그것이 내 살이 되리라.” 물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 6:53-56)

이 말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55절까지는 여기서 의미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문제는 56절에서 생깁니다. 만일 본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벌써 주님을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자신이 먹고 마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51-55까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6절에 와서는 대부분의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살을 먹고 나서 내가 먹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6절에 이르면 이 본문이 문자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57절을 보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을 좀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이 구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57절에서 해석의 단서를 제공하는 단어가 바로 “같이(As)”입니다. “as”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두 가지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을 씹어 먹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51-57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문맥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살아 있는 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살이 실제적인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8절에서는 “이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고 있는 자신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키면서 그것이 “살아 있는 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7절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51-57의 문맥은 “무엇인가를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주님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의 여럿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요 6:59-62)

본문의 문맥 자체가 우리를 올바른 해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실족하자 주님께서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적인 내 살을 먹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데 만일 그러하다면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가 나의 살을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느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빵을 만들어 그것을 주님의 살이라고 우기는 방법을 개발해 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63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서는 하늘로부터 온 실제적인 빵을 가지고 자신도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적인 빵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 자체만 이야기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실제적인 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인 빵을

먹고 실제적인 생명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빵을 먹으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영적인 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거듭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그 어디에서도 인간의 살을 먹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거듭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정한 진리를 믿으면 영적인 출생을 하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르침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레 3:17). 사도행전에서는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그것은 주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행 15:20). 성경에 의하면 가나안의 이교도들은 피를 마시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인 실제적인 사람의 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을 먹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된 해석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화를 가진 것을 봐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와 성경의 문맥 모두 올바른 해석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역의 천주교 신자들은 왜 거짓된 해석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서 성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에 있어서는 충실한 추종

자가 되기 위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만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침례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카톨릭이나 침례교회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시스템이 됩니다. 물론 교회를 꾸민 장식도 다르겠지만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요.

골로새서 2:18-20을 보세요.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택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이것은 매우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골 2:21-22) 이것은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런 원칙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경고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정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규제하는 원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문맥을 보지 못하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골 2:23) 육체를 제어하고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 없이 그러한 규칙들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육신적인 일들을 제어하고 육신을 만족시키지 않는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가르침이나, 교회에 올 때에는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셔츠도 요란한 것을 입으면 안 되고 머리 모양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가르침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문맥의 앞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골 2:13-17) 한쪽 편에서는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이나 원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1-4입니다. “그러므

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생명과 기쁨과 실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음행” 이것은 규칙에 대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남자에게도 손을 대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손대지 말고 입술도 대지 마십시오. 눈도 조심하십시오. 만일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사십시오.

“부정함” 깨끗하지 않은 것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5절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입니다.

“무절제한 애정” 이것은 자신의 아내나 남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대부분의 경우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능력을 돈을 버는데에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왜 영적인 일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영적인 것보다는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며, 왜 성경보다는 은행잔고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문맥에 의하면 저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의 생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저는 만지지 않고 맛보지 않고 손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원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맥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는다면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5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간증을 파멸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규칙도 필요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런 경고의 말씀도 없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결코 하지 않게 됩니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아무런 규칙이나 원칙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남편을 섬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섬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국가를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각 책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방법은 문맥의 전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는 입장에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되고 그 어떤 것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짐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의 지침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네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네비게이션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야할 길을 안내해 줍니다. 아무도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침들도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속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비게이션의 목적이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안내하는 것인 것처럼 성경의 목적도 그리스도인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안내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을 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도와주는 책이지 짐을 지우는 책이 아닙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지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온 경고의 말씀들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제 “참조 구절(cross reference)”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한 부분과 비교함으로써 두 부분 모두 더욱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조 구절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적인(verbal)” 참조 구절입니다.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절에 나온 단어와 동

일한 단어를 포함한 구절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나 표현이 사용된 구절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희생,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사십 일, 심판 등의 단어를 연구할 때 같은 단어나 표현이 사용된 성경의 다른 구절을 찾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참고 구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백한 문자적 참조 구절(apparent verbal cross reference)”이 있고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참조 구절(real verbal cross reference)”이 있습니다. “명백한 문자적 참조 구절”이라는 것은, 두 구절이 정확히 같은 형태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구절의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sacrifice(희생, 혹은 희생제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신약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성경에서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두 구절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heart”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두 구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Ark”라는 단어는 방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언약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구 사전에서 Ark라는 단어를 찾으면 “명백한 문자적 참조 구절”과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경우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두 곳에서 구절을 뽑아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참조 구절”을 찾아본 것입니다. 성막을 공부할 때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히브리서의 관련 구절을 찾아보고 다시 레위기로 갔다가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막의 영적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인 참



조 구절”은 같은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념적인 참조 구절(conceptual cross reference)”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본문이 서로 같은 개념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2장과 빌립보서 2장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은 모두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개념적인 참조 구절입니다. 개념적인 참조 구절의 가장 큰 예가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셋째는, “평행적인 참조 구절(parallel cross reference)”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생애는 사도행전에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도 그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 살펴볼 때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sup>21</sup>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할 때도 여러 본문을 살펴봐야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기와 역대기, 그리고 시편을 동시에 연구해야 그의 생애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나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살펴봐야 하는 본문을 “평행적인 참조 구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구절이 참조 구절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보다 더 확실한 참조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참조 구절로 빛을 비췄을 때 처음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구절이 연구하는 부분의 참조 구절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할 때 참조 구절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단 하나의 구절로만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up>21</sup> 빌립보서의 경우 아마도 3장 앞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역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히 11:23)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이며 또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모세를 숨겨야 했습니까? 히브리서 11:23은 출애굽기 2장이 있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건디어 났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히 11:27-28)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27-28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에는 반드시 참조 구절이 필요합니다. 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는 왕과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면 참조 구절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를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건디어 났느니라.” 이것은 흥미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0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왜 피를 뿌렸으며 파멸시키는 자는 누구였는지 출애굽기가 없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고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히 11:32) 만일 주님께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는 기드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지만 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구약성경에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삼손이나 입다의 생애를 찾아 본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삼손이나 입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가 밋세바와 간음을 할 때 율법의 무슨 조항을 지킨 것인가요? 또 밋세바의 남편을 죽였을 때는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킨 것일까요? 저는 다윗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와 시편을 비교해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히 11:33) 우리는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참조 구절들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구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유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조 구절을 찾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으로 다른 부분을 비추는 것이며 서로 다른 두 부분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찾아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면 성경의 기록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한 구절을 통해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찾아보고 비교해 봐야 비로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면 모든 것이 더욱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 제 9 과

## 비문자적 본문의 해석 원칙

이번 과에서는 타입(type), 상징(symbol), 비유(parable), 풍유(allegory)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기법으로 기록된 부분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비문자적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문자적 본문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9가지 원칙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타입이나 상징이 가르치고자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원칙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입이나 상징의 기법으로 교훈을 줄 때는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입이나 상징의 기법이 사용된 문맥을 볼 때에는 이러한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특정한 교훈은 대부분 문맥을 통해 드러납니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서술된 본문의 모든 부분은 특정한 한 가지 진리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문은 모두 드러내고자 하는 한 가지 진리나 교훈에 맞춰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씨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뿌린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2개의 구절이 한 가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한데 모인 것입니다. 2개의 구절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다는 것

을 말하고 나머지 10개의 구절은 다른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본문이 한 가지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원칙은, 분명하고 평이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를 타입, 상징, 비유, 풍유 등의 기법으로 기록된 본문을 근거로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한 본문이 있다면 비유나 상징을 통해 이것과 반대되는 교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석에 있어서는 비유나 상징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평이하고 문자적인 본문보다 우세할 수 없습니다. 비유나 상징은 문자적인 본문의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서 지성소의 등잔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문자적인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지성소의 등잔불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성소의 등잔불은 꺼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막과 지성소가 모두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친히 빛이 되실 것이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씨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은 마귀들이며 사탄을 따르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을 확장해서 공중의 새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먹는 것처럼 마귀가 성경을 먹었기 때문에 성경이 마귀의 위 속에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 비유에서 한 부분만 떼어다

가 거기서 어떤 사실을 끄집어 내어 성경 그 어디서도 가르치지 않는 특정한 교리를 만들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 많은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특징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로 인해 홍수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자 그에게는 더 이상 방주가 필요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이후에도 구원 받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징과 모형만을 가지고 교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상징과 모형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분명한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징과 모형은 이미 문자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를 지지하고 부연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상징과 모형에만 근거해서 교리를 세우면 추측에 근거한 불안정한 교리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다음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원칙은, 어떤 특정한 교리에 있어서 모형과 상징이 유일한 성경적 근거일 때에는 그 교리는 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나 모형은 평이한 본문을 입증하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이한 본문이 상징이나 모형의 예는 아닙니다. 즉 상징이나 모형이 평이한 본문을 지지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평이한 본문에서 나온 교리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모형과 상징으로 나아가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마치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평이한 구절을 근거로 교리를 세우고 구약성경의 모형을 그 일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구약성경으로 가서 먼저 교리를 세우면 비성경적인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때에는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마리의 특정한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서로 다른 양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도 저마다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동일한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서로 다른 구원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평이한 구절을 통해 교리를 세우고 모형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양한 예수와 다양한 구원자가 존재하여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유일하다는 교리는 성경의 평이한 본문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모형이나 상징도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평이한 본문에서 나온 교리가 지지하지 않는 이상 모형이나 상징만을 통해 교리를 세우면 거짓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교리는 평이한 문장으로 기록된 본문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징이나 모형을 통해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이나 모형은 평이한 문장에 근거해서 세운 교리의 예화일 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



는 모두 평이한 문장에 근거하여 확정된 것이지 모형이나 상징에 근거하여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비문자적 본문을 해석하는 넷째 원칙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징이나 모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눅 10:25-37).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반쯤 죽게 된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30절). 이러한 사실을 보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는 조화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두고 그들이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면에서는 율법과 종교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해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둘 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을 계속 해 가다보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눅 10:33-34) 본문에서 언급된 “기름과 포도주”를 두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죄사함과 성화”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주석가는 이것이 “구원과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눅 10:35) 어떤 주석가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데나리온”이 두 가지 예식, 즉 침례와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침례와 주의 만찬이 무엇에 대한 지출인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모든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침례나 주의 만찬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라미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관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주장은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만 빼면 얼추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sup>22</sup>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 많은 새로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 “새로운 진리”를 “발굴”해 내어서는 안됩니다. 비유를 통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섯째 원칙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넷째 원칙에도 해당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원칙은 비유이든 상징이든 평이한 구절이든 간에 단 한 번 언급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1을 보세요.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마치(he likened)”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이것은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라는 표현은 다른 무엇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sup>22</sup> 이러한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역주

계속해서 나머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 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2-13)

주님께서 이 비유 전체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이며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다른 모든 설명들은 “깨어 준비하라”는 한 가지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위반해서 해석한다면 새로운 교리를 창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해석 원칙을 위반해서 각 구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2절) 이것은 구원 받는 전체 사람들 중의 50%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고

<sup>23</sup> 이러한 해석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역주

나머지 50%는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sup>23</sup>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들 중 절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절반은 준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2절을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비유가 가르치는 것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13절). 그런데 구원 받는 사람들 중 절반이 깨어 있다고 해석해 버리면 비유의 목적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들 중 절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퍼센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인 오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원 받기 이전에 이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가르치던 사람은 이 비유에 나오는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기름을 성령님으로 비유하시지 않고 항상 생수를 성령님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순수한 물, 살아 있는 물, 흐르는 물이 항상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기름이 성령님의 상징이라고 가정하고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성령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릇은 우리의 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그릇) 안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잘못된 해석은 시작부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6절) 신랑이 언제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한밤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은 몇 시일까요? 확실한 사실은 주님의 재림은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계가 동시에 한밤중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무도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므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신다고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실 때 플로리다가 한밤중이라면 호주는 대낮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밤중에 오신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해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성령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만일 이 비유에서 기름이 성령님이라면 다섯 처녀는 성령님을 다 써버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령님을 구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다섯 처녀도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눠 “쓰기”에는 부족한 것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

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9절)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자신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비하고 싶으니 성령님을 소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리할 수 없노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나요?” “예” “저도 구원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싶어요.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는데요. 저의 구원자를 당신에게 나눠주면 저와 당신 모두 구원자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원자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9절b)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9절c)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면 성령님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시몬이 이러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실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있는 한 가지 진리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 나온 것들은 모두 한 가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보충 설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충 설명은 여러 가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1-2을 보세요. “그때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하더라.” 2절은 “And”로 시작합니

다.<sup>24</sup> 2절은 1절과 관련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도 “And”로 시작하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즉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1, 2절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가 그것을 찾은즉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눅 15:3-7)

이 비유는 “백명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99명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단 1%의 사람만이 구원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 인류중 몇 %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이 외에 다른 것

<sup>24</sup>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1절과 2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King James Bible에서는 두 구절이 별도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2절이 “And”로 시작합니다.-역주

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와 관련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흔아홉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7절).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 받아 의인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은 1절과 2절에서 나온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비유에 나온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유의 해석은 대구를 이루지 않습니다. 이 해석에 나온 모든 부분을 해석하다 보면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 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그녀가 그것을 찾은즉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눅 15:8-10)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는 열 개의 동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인류 중 90%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첫째 비유와 맞지 않게 됩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단 1%만이 구원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 비유에서는 10%가 구원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혹은 구원 받지 못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며 그러한 부분을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처음에는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비유의 목자는 자신의 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습니다. 둘째 비유의 여인도 자신의 동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유의 모든 부분을 해석하다보면 해석과 사실이 맞지 않게 됩니다.

비유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에서 어느 한 부분만 끌어다가 그것을 확장하여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교리를 만들면 그 교리가 나온 비유와도 맞지 않고 나머지 성경 전체와도 맞지 않는 교리가 나올 뿐입니다.

셋째 비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의 작은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의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이여,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니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눅 15:11-32)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점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이 셋째 비유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가

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이 이 비유가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며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해야 할 점은 이 비유는 그대로 비유로 놔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확장해서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며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창녀와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재산 관리를 잘 했던 사람도 있고 방탕하지 않고 건전하게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확대 해석하여 둘째 아들의 상태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으로 해석한다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석가들은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과 해석합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에 대해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구절은 없습니다.

저도 타입, 모형, 그림자, 비유, 상징 등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예화로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구절을 통해 제시된 진리를 넘어서는 것을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교사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칫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과 추측에 기반한 것을 가르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1-12을 보세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된 일이나? 네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라. 네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은 꼭 목회직을 그만둔 목사들의 말 같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백 말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빨리 앉아 오십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백 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져다가 팔십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여기서 주인은 영어로는 “lord”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불의한 맘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맘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언젠가는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장부를 위조해서 주인에게 빚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지 않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원 받지 않은 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결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직장 상사를 속여 이득을 취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게 회사의 채무자들의 부채를 50% 삭감해 주자는 의견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말 것입니다. 직장 상사를 속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짓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배가 없다면 다리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다시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처음 믿고 나서, 혹은 진리를 알고 나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가 나중에 그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느라

몇 배의 노력을 들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경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서 심지어 그들을 저주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일주일 내로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해 버려도 상관없을 겁니다. 일주일 안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다른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주일 내로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를 끊었던 그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끼리, 혹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선 과에서 일반적인 원칙들을 살펴 보면서 이 부분을 다룬 바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면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 중 의도 없이 행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며 우리도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말(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발설된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말한 사람의 의도를 의미합니다.

예언서에 나온 하늘을 나는 메뚜기 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헬리콥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는 헬리콥터라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헬리콥터라고 기록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50년 전에는 누구도 헬리콥터가 무엇인지 개념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캐딜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창은 창

이지 바추카포가 아닙니다. 예언적 문장을 비유나 풍유로 만들어 놓고 해석해 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곡과 마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곡과 마곡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예언에 대해 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언을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대를 해석해야지 시대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곡은 곡이고 마곡은 마곡입니다. 어떤 사람은 곡과 마곡 중에 하나가 나치라고 했지만 나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소련이라고 했지만 소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듯 역사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면 틀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리비아는 성경에 그대로 리비아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집트는 그대로 이집트입니다. 레바논도 그대로 레바논입니다. 그리스와 로마도 그대로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두발도 그대로 두발입니다. 바빌론도 그대로 바빌론입니다. 유엔은 바빌론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이나 로마가 바빌론도 아닙니다. 바빌론은 바빌론입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 억지로 다른 것을 가져다 붙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곱째 원칙은, 성경의 기록자들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서는 때로는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8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짜로 왕처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이 아닌 것을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

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이해를 위해 그러한 가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올 때 그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여덟째 원칙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눅 18:9) 이것은 “바리새인과 새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이며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는 재림이나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구원이나 그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18:11) 꼭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도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지요.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눅 18:12)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3-14)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실제로 세리나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소리내어 말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에 다른 사람을 언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마음의 상태와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원칙은, 주님의 비유 중 어떤 것들은 예언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면서 이것이 큰 나무가 된 것은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 위에 있게 되는데,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왕국이 성장한 것이라면 거기에 더러운 영들이 함께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예언적이기는 하지만 그 비유 하나만으로는 어떤 교리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비유는 다른 평이한 문장에 근거해서 세운 교리의 지지를 받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 성격을 갖는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 하나만으로 특정한 교리를

만들 수는 없으며 반드시 다른 평이한 구절에 근거한 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는 관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의와 관련된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은 폭력과 관련이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비유를 해석하게 해야지 비유가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귀를 기울이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를 내지 못하였고 다른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 열마는 삼십 배, 열마는 육십 배, 열마는 백 배를 내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하여 그분께 여쭙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여졌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든지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들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막 4:3-15)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방해가 없어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씨는 좋지 않은 땅에도 뿌려졌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좋은 땅에만 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씨뿌리는 자는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막 4:16-17)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가 싫어하거나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끝내 구원 만기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복음에 잠깐 관심을 갖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금방 시들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좋은 땅뿐만 아니라 나쁜 땅에도 씨를 뿌리는 것이 옳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말 내내 수천 부의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건내주었는데, 그들이 모두 전도지를 읽지도 않고 쓰레기 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전

도지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잘못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시나무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 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막 4:18-19)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오락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님보다는 다른 취미 생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 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 받고 신앙 생활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부류의 신자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투쟁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직장이나 가족의 문제, 혹은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를 놓고 갈등을 하고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중에도 결국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일부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섬기고 주님의 농장에서 수고해

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삼십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백 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시니라.”(막 4:20)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는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결국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중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을 위해 선행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가르치지 않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25%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퍼센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일어나는 네 가지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항상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가리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는 씨가 좋은 씨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씨가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밭에 밟히고 자동차 바퀴에 짓눌리고 비에 젖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인생과 영원을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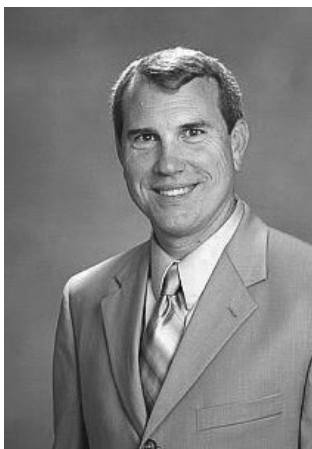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가 열매를 맺지는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꾸준히 말씀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예화도 성경에 나온 것을 사용한다면 두 배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지가 있고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비유가 바로 예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전할 때 필요한 예화를 성경 스스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예화를 사용하면 청중은 진리를 두 배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청중의 믿음이 여러분의 언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에서 예화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청중의 삶이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비유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가르친 진리를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이러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설교 중에 비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knox.com>

\* **옮긴이 : 이우진**

-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 現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편집장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